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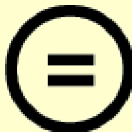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 학위 논문

관용 표현의 범주와 유연성

- Categories and flexibility of idiomatic
expressions -

2018년 2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조승화

관용 표현의 범주와 유연성

지도교수 손남익

이 논문을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조승화

조승화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일

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목 차

I. 서 론	
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2
1.3. 연구 대상 및 방법	5
2.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주	7
2.1. 관용표현의 개념	8
2.2. 관용표현의 범주	12
가. 속담	13
나. 연어	15
다. 다의어	16
라. 융합합성어	19
2.3. 기타	21
가. 은어·전문용어	21
나. 상투적 표현·형식표현	23
3. 관용표현의 유연성	27
3.2. 형태·통사적 유연성	28
가. 어휘 변형	31
나. 내적 확장	33
다. 축약	34
라. 주제화	35
마. 대립	36
3.3. 의미적 유연성	37
가. 불투명	44
나. 반불투명	46
다. 반투명	48
라. 다의적 관용어	49
IV. 결 론	54
참 고 문 헌	56

I. 서 론

1. 연구 목적

관용표현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시민들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관용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관용표현을 연구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흔히 ‘한국인 다 됐다’라는 말은 외국인이 언어사용에 있어 관용표현까지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이 말은 곧 그 외국인이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과 달리 한국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언어 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에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직관은 추상적인데 쉽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것 같은 느낌’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인들이 관용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관용표현이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관용표현이야 말로 가장 한국어다운 표현이며, 언어보다도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수한 언어군이다. 이러한 관용표현의 특성은 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본고는 관용표현의 유연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용표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당한 유연성을 갖는 걸로 보인다. 관용어와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관용표현의 하위 범주들에 대한 경계 설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관용표현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할 때 어디까지를 관용표현으로 설정할 것이며,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관용표현이란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전부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며, 관용표현이란 용어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은 표현이라 생각되므로 본고에서도 관용표현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문제는 관용표현의 범주이다. 그동안 관용어, 속어, 은어, 속담, 금지어, 비속어, 복합명사, 융합합성어, 고유명사, 전문용어 등이 관용표현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학자들마다 관용표현의 범주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고 아직 관용표현의 범주라고 통용되는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관용표현의 범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판정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용표현의 정의를 확인해보고, 판정 기준이 될 수 있는 특성을 찾을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관용표현이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동안 애매모호했던 선행연구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될 것이다.

1.2. 선행 연구

본고에서는 관용표현의 유연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형태·통사적 활용에 대한 연구와 관용 의미의 유연성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서 연구사를 살펴야 한다.

관용표현의 형태·통사적 활용이 일반문보다 제약이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모든 관용표현의 활용이 전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관용표현마다 활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김혜숙(1992)에서는 관용표현의 화석화 정도를 ‘합성어 → 속담 → 금기담 → 형식표현 → 속어 → 은유표현 → 익은말’로 나타낸다. 익은말(관용어)의 고정성은 일반문에 비하여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나 절대적인 특성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관용어의 화석화는 합성어나 은유 표현, 속담 등에 비하면 오히려 신축적인 편이다. 김진식(1996)에서도 속담과 관용어의 특성을 비교하여 속담이 관용어보다 형태상 고정성이 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경화(1987)에서는 광의의 범주로 관용 표현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속어, 다의어, 속담, 격언, 금기담, 형식표현 등을 제시한다. 속어(=관용어)는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구조를 지녀 구 차원에 적용된다고 정의하였다. 속어의 특징을 크게 ‘굳어짐’과 ‘은유’로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속어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속어에는 각 속어성에 차이가 있으며, 5가지로 분류한다.

- ㄱ. 형태면에서 변이형의 유무
- ㄴ. 통사면에서 통사작용의 제약 유무
- ㄷ. 의미면에서 투명도
- ㄹ. 의미면에서 관용의미의 복수 여부
- ㅁ. 사용면에서 구성단어, 구의 일상적 사용 여부

형태·통사·의미·사용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관용어를 분류하려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ㄱ)과 (ㄴ)은 본고에서 주장하는 형태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고, (ㄷ), (ㄹ), (ㅁ)은 의미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안경화(1987)에서는 속어의 의미 분석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용 의미의 합성성을 주장한다. 이전의 논문들에서 관용어의 의

미가 불투명하다는 관점이었다면, 안경화(1987)는 투명하다고 보았다.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째, 두 의미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없다는 것과 둘째, 두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통 후자는 인지미론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안경화(1987)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학계에 큰 의미가 있다.

김진해(1995)는 관용어의 통사적 제약에 대해 밝히고 있는 데 관용어가 일반문에 비하여 제약이 있음은 확실하나 수식, 피동·사동의 변형, 관용어 전체의 대명사화, 주제화, 삭제, 반복, 대치, 대립, 부정사 ‘안’과 ‘못’의 수식이 가능함을 밝혔다.

김진해(2003)에서는 철학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독립성’의 관계로 관용 의미와 직설 의미를 설명한다. ‘기호학적으로 말한다면, 기표가 기의에 종속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표 스스로의 독립적인 결합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관용표현은 새로운 기의를 형성하지만, 그 새로운 기의가 기표의 모든 부면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¹⁾ 즉 관용표현이 새롭게 생성한 관용 의미가 관용표현의 형태·통사적 구조를 모두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용표현의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의 유연성도 형태·통사적 유연성과 같이 관용표현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관용표현의 관용 의미가 전부 유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안경화(1987)에서는 많은 속어가 합성적이라 언급하였다. 오제운(1998)에서도 관용어의 관용 의미가 합성적이라 주장한다.

주영진(2001)은 관용어의 의미 분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주영진(2001)에서는 속담에서 관용어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려 시도한다. 속담과 관용어의 구별이 어려운 이유는 속담이 문법화를 거쳐서 ‘속담 관용어’가 생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속담에서 속담관용어로 변해가는 언어적 원리는 크게 축소, 결속, 중복, 유추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축소의 원리는 속담의 언어적 크기가 줄어들면서 관용어로 변해가는 원리이고, 결속의 원리는 축소의 원리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그 속담 구성 요소끼리 계열적 결속성(계열성)은 줄어드는 반면, 통합적 결속성(결합성)은 증가하는 원리이다. 중복의 원리는 속담에서 관용어로 변해가는 과정인 속담 관용어에서는 속담의 특성과 관용어의 특성이 중복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속담이 관용어로 변해가는 단계가 연쇄적이며, 비분절적임을 암시한다. 유추의 원리는 언중이 속담관용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을 기존 속담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유추는 담화 상황에서 가지는 속담의 관습성에서 기인하는 원리이다.²⁾

1) 김진해,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의미학회」 13권 0호, 2003, 27쪽.

2) 주영진,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되기』,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1~2쪽.

속담관용어는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로 속담과 관용어 사이에 존재하며,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이다. 관용어는 다양한 언어재에서 유래한다. 속담, 다의어, 비유적 표현, 형식적 표현 등의 언어 표현들 모두 관용어를 형성하는 언어재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다의어가 관용어의 형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관용어에서 다의어가 생성된다는 입장이다. 관용어의 어느 한 구성요소에 의미의 중심의미가 기울어지면, 그 구성요소에 관용어의 의미가 스며들어 다의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영진(2001)은 관용어의 생성이 관용 표현의 하위 개념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관용어와 다른 개념들의 구분이 어렵다는 걸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문법화’이론을 적용한다. 문법화란 ‘본디 의미적으로 완전한 단어(어휘어)들로부터 별 의미가 없는 문법 기능만을 주로 담당하는 단어(기능어)들로 바뀌는 변화’를 말한다.³⁾

ㄱ.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다.

→ 오리발 내밀다

→ 오리발

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 김치국 마신다

→ 김치국

ㄷ. 닭살이 돋는다 → 닭살

ㄹ. 가위질 하다 → 가위질⁴⁾

예시들은 속담에서 관용어로 축소 된 후 융합합성어로 한 번 더 축소된 형태이다. 관용어를 구 이상의 형태로 한정하는 관점에서는 융합합성어는 관용어에서 제외시키지만, 주영진(2001)에서는 융합합성어도 관용표현으로 처리한다. 속담에서 관용어로 축소되면 속담이 갖고 있던 감정 가치는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관용어에서 융합합성어로 한 번 더 축소되면 속담이 갖고 있던 의미는 불투명해진다. 관용어가 축소되면서 융합합성어가 된다고 했는데, 항상 융합합성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의어가 되는 것도 있다. 문제는 속담이 축소되어 쓰이면서 관용어를 형성한 후에도 속담은 속담대로 사용되고, 관용어는 관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용표현의 하위범주들의 경계 설정이 모호해진다.

3) 주영진,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 되기』,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4쪽.

4) 주영진,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 되기』,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14쪽.

박만규·천미애(2003)에서는 관용어의 투명성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언어와 의사 관용표현, 관용표현의 의미 분석을 시도했다. 언어는 ‘어휘적 의미+임시적 해석’, ‘임시적 해석+어휘적 의미’로 분석가능하며, 의사 관용표현은 ‘임시적 해석+어휘적 의미+다른 의미’로, 관용표현은 ‘임시적 해석+임시적 해석→단일 의미’와 ‘순수 관용표현의 단일 의미’로 분석 가능함을 밝혔다. 관용표현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관용 의미와 직설 의미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관용 의미가 유연성을 갖음을 의미한다.

지경숙(1999)는 관용어의 의미 관계를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복합 의미관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 분류한 의미 관계의 차이에 따라 관용어의 활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유의관계에 있는 관용어는 어휘 변형이 가능하다. 반의관계는 유의관계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신체어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 반의관계를 갖는 관용어는 대립쌍을 갖고 있다. 상하관계를 갖는 관용어는 의미장으로 실현된다. 복합 의미관계를 갖는 관용어는 다의관계의 관용 의미와 동음관계의 관용 의미를 갖는다. 다의관계의 관용어는 핵심 의미를 공유하지만 동음관계의 관용어는 관용 의미 사이에 어떤 유연성도 없다. 복합 어휘관계는 관용어 중 관용 의미가 하나 이상인 관용어의 의미적 유연성을 밝힌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들에서 관용어의 유연성을 밝히고 있는데 관용어를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용어의 유연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관용표현의 하위 범주들에 대한 유연성도 밝혀 관용표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혀 관용어와의 비교를 시도하려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주를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관용표현과 관용어의 개념이 밝혀져야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관용어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기틀이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애매모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관용표현의 하위 개념으로 속담, 언어, 관용어, 은어, 전문용어, 형식표현, 금기담, 길조담, 비속어 등을 제시하면서 관용표현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어와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관용표현을 판정하는 것이기 보다는 관용어와 비교하는 것밖에 안된다. 판정 기준을 밝힌 연구들도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 혼란스럽다.⁵⁾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관용표현의 개념을 찾아 정리하여, 최소한의 관용표현 특성을 찾아 관용표현의 판정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본고의 이차적 목표는 관용표현의 유연성을 밝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연구에서 관용어의 활용상 제약과 의미의 비합성성은 관용어 판정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용어들이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의미가 투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용어의 활용이 가능한 것과 의미가 투명한 것이 곧 관용어의 유연성이라 가정하고 이에 대해 밝히려 한다.

본 연구에 앞서 관용어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다. 선행연구들의 예시들을 보면 항상 사용되고 있는 예시들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관용어 ‘바가지를 굶다’는 논문 마다 꼭 나오는 단골손님이다. 본고에서는 반복적인 관용어를 최대한 피할 생각이다. 그렇기 위해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 관용어 사전」, 「세종전자사전」을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사전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기적으로 등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관용구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어서 자료의 파악이 용이하다. 총 4598개의 관용구를 수록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사전을 업데이트하므로 새롭게 등재된 관용어의 파악이 가능하다.

「세종전자사전」의 자료 파일에는 ‘관용표현_기초’에 관용구 총 3260개를 제시하고 있다. 정확히 ‘체언+용언’과 ‘용언+용언’의 형태의 기본적인 구적 형태의 관형어만을 제시하고 있어 관용어의 유연성을 밝히기 위한 자료로 적합하다. 하지만 ‘체언+체언’형이 제시되지 않아 이것만을 자료로 살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우리말 관용어 사전」⁶⁾은 상황 맥락에 따라 관용 표현들을 수록해놓아서 연구 대상이 되는 관용어들의 사용 맥락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상황 맥락을 ‘감정 심리, 성격 태도, 동작 행위, 상태 가치, 문화 및 사회 생활’로 분류되어 있고

5)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관용 표현의 판정 기준과 검증법은 다음과 같다.

김종택(1971) - 도치 규칙/ 어휘 삽입 규칙/ 어휘 치환 규칙/ 삭제 규칙/ 확장 규칙 등
 Cowei, A.P. & R. Mackin의 ODE(1975) - 대치 검증/ 첨삭 삭제 검증
 김문창(1976) - 도치규칙/ 어휘 삽입 규칙/ 어휘 치환 규칙/ 삭제 규칙/ 확장 규칙 등
 Fernando(1978) - 의미적 기준/ 통사적 기준/ 사회 언어학적 기준
 박영순(1985) - ±현재성/ ±전지역성/ ±일반 언급/ ±화석화/ ±관용화/ 지속성
 박진수(1986) - 구성 요소 대치/ 수량화/ 복수화/ 어순 변환/ 내적 확장/ 상대적 구조 등
 강현화(1987) - 전지역성/ 지속성/ 현재성/ 제3의 전이/ 중의성
 허 양(1989) - 의미의 비합성성/ 구성 요소의 대치/ 수량화/ 어순 도치/ 내적 확장/ 수동화/ 관형화/ 대명사화
 강위규(1990) - 차용성/ 동의성/ 은유성/ 대중성/ 고정성
 나은영(1994) - +제3의 의미/ +지속성/ +고정성/ +일반성/ +통사론적 구성/ -교훈성/ -비유성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24쪽.)

6)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일 년 4분기로 개정을 하고 있다. 글을 쓰고 있는 현대 2017년 2/4 분기에 수록되어 있는 관용구는 총 4598개이다.

7) 최경봉, 「우리말 관용어 사전」, 일조각, 2014.

약 4300여개의 관용표현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사전들은 관용어 목록을 충분히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2.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주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로서 필자는 관용표현의 하위 개념들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 관용어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지만, 한국어 화자로서 관용어는 이미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관용표현 자체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 화자가 한국어 관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문법적 어색함이 한국어 화자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오히려 더 관용어를 잘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욕심 부리면 가랑이 찢어져. 조심해.”

“나도 알아. 걱정할 거 없어.”

(1)에서 ‘가랑이 찢어지다’는 [다리 사이가 찢어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는 일이 힘에 부치거나 일손이 부족하여 일해 나가기가 몹시 벅차다]는 의미이다. 위의 대화 상황에서 외국인은 문법상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것이다. 외국인은 욕심을 부리는 데 다리가 왜 찢어진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반면 한국인은 어떤 어색함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관용어를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용어의 비합성성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선행연구자들도 모국어 화자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다. 갖고 있던 언어직관과 분리하여 관용어를 객관적으로 대해야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꽤 여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이다.

학자들의 연구태도도 관용어 연구에 혼란을 더한다. 박진호(2002)는 속어, 연어, 화용론적 관용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 셋이 서로 교집합을 갖게끔 이론을 세워 나갈 수도 있고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게끔 개념을 정의하고 이론을 세워 나갈 수도 있다.’⁸⁾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관용표현의 범주 설정이 학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학자들이 연구의 내용을 색달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범주 설정에 차이를 준다고 보았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말이라 생각한다. 선행연구들은 같은 개념의 것도 용어를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관용어 연구에 많은 혼란을 준다.

관용표현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관용표현이 무엇인지 판정하고 관용어와의 비교

8) 박진호,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회, 「국어학」 41권, 2003, 366쪽.

를 통해 관용표현에서 하위 범주들이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2.1. 관용표현의 개념

관용표현의 범주의 제시하기 위해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일컬어지는 관용어에 대해 알아야한다. 관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이 어느 정도 일치하나 관용표현의 하위 범주들과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관용어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김종택(1971) 이디엄은 대중성과 통용성을 지니며,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그 결합에서는 논리적으로 추출할 수 없는 독립된 의미소를 가진다.

황희영(1977) 익힘말은 그 구성요소인 형태소들로부터만으로는 그 표현의 뜻이 추출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규선(1978) 관용어구는 구형의 단어단위로서, 그 속에 포함된 형태소 개개의 의미로서는 그 구조 전체의 바른 뜻을 예측할 수 없는 복합어휘항목이다.

박영순(1985) 관용어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된 복수구조로 비논리적이고 탈문법적이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특수한 말이다. 의미론적으로는 단일 의미를 가지며 제 3의 의미를 가지는 특수 언어군이다.

안경화(1987) 관용표현이란 비문법적이지만, 관습상 통용되는 표현이다. 속어는 관용표현의 하위개념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부류로 ‘굳어진 은유표현의 구 또는 절’이다.

김문창(1990) 속어는 2개 이상의 어휘가 긴밀히 결합하거나, 또는 이렇게 결합된 어휘군이 제3의 의미를 재생산해내는 특별한 연쇄어군이다.

김혜숙(1993) 구절로 되어 있으면서 구성 요소 각각의 의미가 합해진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문맥에 따라서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갖는 관용 표현이다.

양영희(1995) 속어는 두 단어 이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구성 요소의 의미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하며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제운(1997) 관용어란 그 나라 언중이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말로써, 둘 이상의 어사(단어)가 긴밀히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화석형으로 문자적 의미(M2)와는 다른 제3의 의미(M1)를 나타내는 상황 효과 표현의 어구나 문장을 말한다.

김영철(2000) 관용어란 둘 이상의 어휘소가 결합된 구나 절로, 비유표현이 화석화되어 구성요소의 의미의 합이 아닌 제 3의 단일의미를 가지는, 그 언어사회에서 대중성을 얻어 통용되는 특이한 언어형식을 말한다.

주영진(2001) 관용어란 둘 이상의 어휘소가 결합되되, 구성어휘소의 개별의미 결합이 아닌 제 3의 단일 의미를 가지는 그 나라 언중에게 화석화되어 익어버린 구절형태의 특이한 결합관계를 말한다.

권경일(2008) 속어는 둘 이상의 단어 또는 어절이 관습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로서 고정적으로 쓰이면서 구성요소의 의미의 합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구절이다

최수진(2013) 관용어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되, 언어 사용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동기화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관습적인 말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첫째, 용어로는 관용어, 속어, 관용어구, 익힘말, 이디엄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용적 표현이며,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갖는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한 용어로 '관용어'를 사용한다. 관용표현은 다양한 관용적 성격을 갖는 범주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용어의 상위 단위이자 되고, 관용어는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하위 범주들의 하나가 된다.

둘째, 개념상 알 수 있는 관용어의 특성은 ㉠대중성, ㉡둘 이상의 구성요소의 결합, ㉢제 3의 의미 ㉣화석화(화석형)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관용어는 '둘 이상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제 3의 의미를 갖는 특수한 표현이며 모국어 화자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대중성⁹⁾을 갖는 특수한 표현이다.

9) 관용 표현에서 말하는 대중성은 질(quality)과 양(quantity)의 면에서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관용 표현은 시간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고, 사용자의 수적인 면에서는 그 언어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통용되는 표현이어야 한다. (강위규, 『관용 표현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한글학회. 「한글」 209, 1990, 159쪽.)

관용어는 둘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구 형태가 대다수이고 소수의 짧은 문장 형태를 띤 형태가 있다. 관용구의 형태는 '체언형'과 '용언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용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는 '체언+용언'형이다. 1994년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의 말뭉치 회의에서는 관용어 중 구형 관용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명사(+조사)+용언'의 형태가 88.9%로 가장 많이 출현한다¹⁰⁾고 밝혔다.

관용어는 범주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편리를 위해 관용어와 속담, 연어, 융합합성어, 다의어, 형식표현, 은어, 전문용어, 비유표현 등을 아우르는 관용표현이란 상위개념을 설정해왔다. 관용표현이란 상위개념을 제시한 것은 연구에 편리성을 가져왔지만, 새로운 범위를 제시하면서도 '관용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제시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자들마다 그 범위 설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범주로 사용되어 왔다.

관용표현의 연구를 위해서 개념과 범주 설정은 연구의 밑바탕이 되는 작업이다. 범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연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용표현의 범주가 명확해지면 하위 개념들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관용표현의 범주를 가장 넓게 보는 경우 '관습적인 표현' 전부를 관용표현이라 본다. 이러한 개념 설정은 관용표현의 범주를 무한정 확장시키게 된다. '관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이다. 언어의 관습은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이며 한국인들에게 통용되는 것이다. 한국만의 문화 풍습이 있듯이 한국어에도 풍습이라는 것이 있다. 관습적 표현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가 관용표현이 된다. 이러한 정의는 관용표현의 범주 설정을 어렵게 할 뿐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용표현을 정의한다.

김인한(1983) 광의의 관용어란, 대중성·통용성을 지니며 다의어, 융합 복합어, 속담, 은어, 속언, (고사)성어, 수수께끼, 비유어, 협의의 관용어 등을 포괄하는 범주의 언어단위로서 그 속에 포함된 형태소 개개의 의미로서는 전체 표현의 뜻이 추출 될 수 없는 언어단위를 말한다.

박진수(1986) 관용표현은 관용어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나 구성 요소의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뜻을 가지고 언중들에 의해 관용되고 있는

10)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7쪽.

앞서의 속담·고사성어·은어·융합복합어 등을 본고의 관용어와 묶어서 관용 표현이라는 상위 범주에 포함시켜 생각한다.

안경화(1986) 그 언어의 전반적인 규칙성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나, 관습상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허 양(1989) 문법·의미면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언어형식으로서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의 의미로부터 그 의미를 규명할 수 없고 제3의 새로운 의미단위를 형성하는 한 언어체계 내의 특유한 표현방법으로 관용표현을 설정한다.

강위규(1990) 관용 표현의 개념은 “말할이가 특정 상황에서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일반적인 표현과는 다른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형태가 그 언어 사회에서 대중성을 얻어 익은 형태로 통용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여기서 ‘익은 형태’란 빌어 온 특이한 형식이 고정되어 하나의 단위처럼 익숙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나은영(1999) 관용표현이란, 비논리적이지만 언중들에게 받아들여져 관습상 통용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해(2003) 관용표현은 구성요소의 의미 합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의미를 갖는 구성으로 더 이상 나눌 수도 없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개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관용표현이란 용어는 학계에서 관용적 성격을 지닌 범주들의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관용표현이란 구성요소의 의미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비논리적인 언어 결합으로, 오랜 시간 언중들 사이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온 표현이다.

관용표현은 대중성과 구성요소의 합으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 표현들이다. 관용표현과 관용어의 정의를 비교해보면 단위 차이만 있을 뿐이다. 관용표현에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비문법적인 표현들로 단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관용어는 관용표현 중 구 이상의 짧은 문장 단위를 갖는 관용표현으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관용표현의 범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 이상의 짧은 문장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단위의 관용표현을 밝혀야한다.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개념을 종합해 봤을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그 구성요소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들이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다른 특성이 관용표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다.

2.2. 관용표현의 범주

박사 논문인 오제운(1997)에는 관용표현의 범주 설정을 위하여 그 동안의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범주 설정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를 해놓았다. 유형별로 중요한 논문이 빠지지 않고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본격적인 연구 전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 1유형 : 단일어 형태부터 구, 절, 문장까지 포함.

옥스퍼드 영어 사전(1933), Hockett(1985), 웹스터 영어 사전(1961), 랜덤 하우스 영어 사전(1966), Saussure(1969), Chafe(1970), Fraser(1970), 롱맨사전(1979), 임경순(1980), 표준 국어 대사전(1981), 김인한(1983), 정옥주(1985), 강현화(1987), 강위규(1988), 김봉모(1994), 성광수(1995)

제 2유형 : 복합어 형태부터 구절 형태까지 포함.

松村明(1982), 左藤喜代治(1982), 北京保雄(1983), 윤희수(1988)

제 3유형 : 복합어 형태부터 문장 형태까지 포함.

김민수(1964), 김종택(1971), 太田郎(1974), Fernando(1978), 김규선(1978), 황희영(1978), 국어 대사전(1982), 이영희(1982), 이택희(1983), 심재기(1986), 언어학 사전(1987), 홍미량(1989), 최경봉(1992), 우리말 큰사전(1992), 동아 새국어 사전(1993), 이상억(1995)

제 4유형 : 구절 형태에서 문장 형태까지 포함.

김문창(1976, 1990), 강정선(1982), 오제운(1982, 1997), 이택희(1983), 김인한(1983), 양태식(1984), 국어 국문학 사전(1984), 옥스퍼드 이디엄 사전(1984), 박진수(1985), 박영순(1985), 윤소희(1986), 한정길(1986), 안경화(1987), 허석(1989), 현대 조선말 사전(1992), 조선말 대사전(1992), 임지룡(1993), 김옥분(1994), 양영희(1995), 박동근(1995), 이희자(1995)¹¹⁾

제 1유형은 관용표현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 오제운(1997)에서는 제 4유형이 23명으로 가장 많은 학자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관용어의 범주로 제 4유형이 기틀을

11) 오제운, 『우리말 관용어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18~19쪽.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제운(1997) 이후에 쓰여진 연구들에서 1유형과 2유형, 3유형, 4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유형으로 학설이 틀을 잡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제 1유형 : 지경숙(1999), 황정아(2006), 민현식(2003), 김형배(2005)

제 2유형 : 박세영(2001)

제 3유형 : 주경미(2008), 이창호(1997), 성연이(2009), 한정환(2010)

제 4유형 : 박만규(2003), 안연희(2006), 김서형 (2013), 박진호(2002)

제 1유형부터 제 4유형까지 모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관용표현의 범주는 통일된 학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속담

속담(proverb)은 간결한 형식 속에 비유를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인생을 교화하고 풍자하는 관용표현이라 할 것이다.¹²⁾ 속담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와 상징적 수법을 통해 완곡히 표현한다.¹³⁾ 대부분의 속담은 비유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용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속담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용표현의 범주에 들어간다. 앞에서 살핀 관용표현의 범주 유형에서 문장 형태의 관용표현이 속담이다. 속담과 관용어의 비교를 통해 속담이 관용표현의 범주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첫째, 통사 단위에 차이가 있다. 관용어는 구 형태 또는 짧은 문장형태인 반면에 속담은 완전한 단문 혹은 중복문 형태이다. 이러한 통사 단위의 차이로 인해 구별이 쉬울 것 같으나 체언형 관용어와 짧은 문장 형태의 속담으로 인해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ㄱ)은 관용어, (ㄴ)은 속담이다.

- ㄱ. 물에 빠진 생쥐
물 얻은 고기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배 부른 소리(를) 하다

12) 김진식, 『관용어와 속담의 특성 고찰(Ⅰ)』,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제13집, 1996, 20~21쪽.

13) 양영희,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37쪽.

빠지도 박지도 못하다
산 설고 물 설다
살을 에고 소금 치는 소리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다

ㄴ. 도토리 키 재기
독 안에 든 쥐
가게 기둥에 입춘
가나다라도 모른다
가난이 싸움이다
자루를 찢는다

둘째, 속담은 중의성이 없다. 관용어는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미를 사용한다. 이러한 관용어의 특성을 중의성이라 한다. 속담은 직설 의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중의성이 없다. (ㄷ)의 속담들을 보면 직설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자식은 오복이 아니라도 이는 오복에 든다
가까운 무당보다 먼 데 무당이 영하다
마냥모 판에는 뒷방 처녀도 나선다
사나운 개도 먹여 주는 사람은 안다
하늘을 쓰고 도리질한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털을 뽑아 신을 삼켰다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

셋째, 관용어에는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가 있다. 언어사용자가 속담을 실제 담화 상황에서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다 보면, 속담 자체가 굳어진 고정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어휘 중에서 의미상 '중심적 요소'와 '주변적 요소'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생긴다. 이러한 인식에 의한 주변적 요소는 생략되는 일이 많아지고, 생략된 형태가 새로운 하나의 언어형식으로 인식되어 관용어로 쓰인다.¹⁴⁾ 이때 중심적 요소에 중심 의미가 침투되어 생성된 관용어의 의미가 된다.

주영진(2001)는 이렇게 생성된 관용어를 '속담관용어'란 개념으로 제시한다. 박영순(1985)에서는 속담과 관용어 사이에는 교집합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 교집합 부분에 속담관용어가 들어갈 수 있다. 속담관용어는 상황에 따라 관용어로도 쓰이고 속담으

14) 주영진,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 되기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23쪽.

로도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어와 속담이 사이에 놓이게 된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다 [어떤 일로 인하여 더할 나위 없이 속이 후련 하여진 경우]

→ 체증이 내려가다 [시원하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다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오리발 내밀다 [판청부리다]

나. 연어

연어(collocation)는 어휘의미 구조상 다양한 결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휘와만 습관적으로 결합하는 어휘 항목의 연쇄를 지칭한다.¹⁵⁾ 연어는 구성요소 중 한 쪽이 결합할 수 있는 단어에 제약이 있어 항상 구 형태로 굳어져 사용된다. 연어는 크게 통사적 특성으로 인해 결합되는 연어와,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결합되는 연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통사적 연어’, 후자를 ‘의미적 연어’라 한다.

통사적 연어는 ‘전철을 밟다’, ‘물구나무를 서다’, ‘시치미를 떼다’, ‘방귀를 뀌다’, ‘코를 풀다’처럼 의미에 변화는 없으면서 서로 결합이 공고한 단어들의 결합이다. ‘전철’, ‘물구나무’, ‘시치미’, ‘방귀’, ‘코’에 의해 뒤의 서술어가 선택 제약을 받아 늘 같은 형태로 굳어져 쓰인다. 통사적 연어는 결합이 강하여 굳어져 쓰인다는 점이 관용어와 같지만 직설 의미 외에 새로운 의미가 없어 관용표현이라 할 수 없다.

반면에 의미적 연어는 구성요소 중 한 쪽이 다의어로서 확장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직설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의미적 연어의 의미 구조는 ‘A+B=Aa+B’, ‘A+B=A+Bb’, ‘A+B=Aa+Bb’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통사적 연어와 의미적 연어는 고정성을 갖는다는 점이 관용어와 공통되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새로운 의미는 의미적 연어만 갖고 있다. ‘A+B=Aa+Bb’의 의미구조를 갖고 있는 연어는 관용어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Aa+Bb’를 관용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관용어로 포함시킨다.

‘과자를 먹다’는 ‘과자’를 대신하여 ‘빵, 떡, 과일, 후식, 밥’ 등이 올 수 있다. 기본 동사 ‘먹다’ 앞에 ‘먹을 것’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먹다’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먹다’의 의미로 인해 음식과의 자유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배를 먹다’, ‘한약을 먹다’에서

15) 김진해, 『연어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4권 4호, 1999, 240쪽.

‘먹다’는 확장 의미로 [피우다]와 [마시다]로 쓰인다. 이때 [피우다]와 [마시다]의 의미에 의해 목적어로 올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된다. ‘담배를 먹다’와 ‘한약을 먹다’의 의미구조는 ‘A+B=A+Bb’로 직설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ㄱ. 통사적 연어 : 양말을 신다
오줌이 마렵다
모자를 쓰다
설을 쇠다
물구나무 서다
웃을 놀다

ㄴ. 의미적 연어 : 물을 틀다
도둑을 지키다
애가 들어서다
살로 가다
나이를 먹다

통사적 연어와 의미적 연어 모두 구 형태로 결합되어 쓰이기 때문에 구 단위의 관용어와 분류가 어렵다. 특히 의미적 연어와 관용어는 구별이 어렵다. 연구자에 따라 의미적 연어를 관용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황희영(1978)에서는 ‘관용어’와 ‘연어’를 분류하지 않고,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희자(1995)는 ‘구 단위’라는 공통점으로 ‘관용구’안의 하위 개념으로 ‘속어(=관용어)’, ‘연어’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의미적 연어는 관용어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의미적 연어는 단어차원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관용어는 구 전체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들은 관용어라 할 수도 있고, 연어라 할 수도 있다. 연어가 기본적으로 두 단어의 공기 관계라고 했을 때, 두 단어의 공기 관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 관용어가 될 수 있다.¹⁶⁾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용어와 의미적 연어가 속담과 관용어와 같이 교집합을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교집합을 이루는 형태의 것들은 학자들에 따라 관용어도 될 수 있고 연어도 될 수 있다.

다. 다의어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형태에 의미는 여러 개인 단어이다. 다의어는 문맥에 따라

16) 김진해, 『관용어의 통사 · 의미론적 제약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68쪽.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며, 주로 접속할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된다. 다의어 ‘먹다’가 [피우다]를 의미할 때 항상 ‘담배’와 접속하는 것은 ‘담배’가 함께 쓰여야만 [피우다]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다의어의 기본 의미는 접속할 수 있는 단어에 제약이 없어, 사용 빈도가 높다. 반대로 확장된 의미는 접속할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다. 접속에 제약이 있는 다의어는 접속 가능한 단어와 쓰이지 않을 때는 단어의 본래 의미로 쓰인다.

- ㄱ. “불빛이 강해 눈이 아팠다.” → 눈이 아프다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아프다]
- ㄴ. “나는 유치원 때부터 줄 곧 눈이 나뻤어.” → 눈이 나쁘다 [시력이 나쁘다]
- ㄷ. “그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 → ‘눈이 정확하다’ [판단하는 힘이 정확하다]
- ㄹ.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 해” → ‘눈을 의식하다’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다]
- ㅁ. “감시하는 눈이 많으니 조심해라.” → 눈이 많다 [감시하는 사람이 많다]

다의어의 확장 의미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접속할 수 있는 단어에 의존적으로 쓰인다. 다의어 ‘눈’은 서술어에 의존적으로 쓰일 때 확장 의미로 쓰이며 이러한 결합은 연어가 된다. 연어는 구성요소 중 어느 한 쪽이 확장 의미로 쓰여 접속할 수 있는 단어에 제약이 있어 항상 접속할 수 있는 단어와 결합하여 쓰인다. 즉, 다의어는 연어의 구성요소로 쓰일 때 확장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다의어 전체가 연어에 포함된 관계로 봐야 한다.

다의어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는 기준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단어 단위의 관용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다의어는 관용표현이 아니다. 박영순(1985)에서는 다의어는 단일어 차원의 낱말로 관용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관용표현은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므로 단일어인 다의어는 관용표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융합합성어도 관용표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융합합성어와 다의어는 그 특성이 엄연히 다른데 단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관용표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다의어는 형태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고, 의미의 변화만 있다.

손

①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손을 다치다

손이 아프다

손을 잡다
손을 치다
손을 때리다
손을 만지다

② 손가락.
손에 반지를 끼다
반지를 손에서 빼다
반지가 손에 꼭 맞다

③ =일손.
요즘 손이 부족해
요즘 손이 달린다
바쁘는데 손 좀 보태줘

④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손이 많이 간다
일의 성패는 네 손에 달려 있다

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보물을 손에 넣다
그 선배의 손에 떨어졌다
회사가 채권자의 손에 넘어갔다
손에 들어가다

⑥ 사람의 수완이나 께.
장사치의 손에 놀아나다
그동안 영화는 철수의 손에 놀아났다

다의어는 기본의미와 확장 의미 사이에 유연성을 가지지만, 관용어는 의미들 사이에 유연성을 가지지 못한다. ‘손이 크다’에서 ‘손’은 [손목에 달린 끝 부분]의 의미와 [쓰쓰이]의 의미가 유연성을 가지나 관용어 ‘손을 떼다’에서 ‘손’이나 ‘떼다’가 관용 의미 [관계를 끊다]와 유연성을 가지지 못한다.¹⁷⁾ 다의어는 의미 전이가 약하고, 관용어는 다의어에 비해 의미 전이가 강하여 의미가 불투명하다. 다의어와 관용어는

17) 문금현, 『한국어 다의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71권 0호, 2005, 77~78쪽.

유사와 근접에 바탕을 둔 비유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다.¹⁸⁾

다의어 ‘손’의 예시들을 살펴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다의어가 단독으로 확장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다의어가 다양한 단어와 접촉하여 쓰일 때에도 단일한 확장 의미를 갖는다면, 그 다의어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관용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의어는 확장 의미로 쓰일 때 공기할 수 있는 단어와 결합하여 짧은 구 형태로 쓰인다. 공기할 수 있는 단어가 제한되어 일정한 구 단위가 된 ‘다의어 + 공기관계의 단어’는 ‘구’ 단위로 결합한 연어가 된다. 즉, 다의어는 연어의 구성요소로 전체가 의미적 연어에 포함되고,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다의어 자체는 관용표현이라 할 수 없다.

라. 융합합성어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다. 합성어에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유형과 형태소와 접사가 결합한 유형이 있다. 합성어를 관용표현으로 판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모든 합성어가 관용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합성어 중에서 형태소의 의미 결합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융합관계를 갖는 융합합성어만이 관용의 의미를 갖는다.

융합합성어는 구성성분 각각의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합성어로 내적 결합성이 높아서 변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ㄱ) 밤손님 [도둑]
실마리 [단초]
춘추 [나이]
바지사장 [거짓 사장]
밤낮 [하루]

(ㄴ) 오리발 [영뚱하게 탄전을 부리는 태도]
피땀 [노력]
개뿔 / 쥐뿔 [아주 보잘것없거나 규모가 작은 것]

위의 예들은 기본 의미의 합으로 추출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융합합성어로, 그 의미를 구성성분의 합으로 알 수 없는 비합성성이 있다. ‘밤+손님’이 [밤에 오신 손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의미하는 것은 합성성에 배치되는 것이다. 융합합성어는 관용어와 같이 비합성적으로 생성된 새로운 의미를 갖기에 관용

18) 지경숙, 『국어 관용어의 의미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24쪽.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융합합성어와 관용어는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것들이 있다. 먼저 관용어에서 생성된 것들이 있다. ‘오리발’, ‘피땀’, ‘개뿔/쥐뿔’은 관용어에서 생성된 융합합성어이다.

ㄷ. 오리발

→ 오리발(을) 내밀다 [판전 부리다]

“어디서 오리발이야.”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ㄹ. 피땀

→ 피땀(을) 흘리다 [정성을 쏟아 노력하다]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부모님이 피땀으로 모은 재산이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야.”

ㄱ. 개뿔 / 쥐뿔

→ 개뿔 / 쥐뿔도 모르다 [아무것도 모르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개뿔 / 쥐뿔 아는 척이야.”

“개뿔 /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이야.”

→ 개뿔 / 쥐뿔도 없다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하다]

“돈은커녕 개뿔 / 쥐뿔이다.”

“돈은커녕 개뿔 / 쥐뿔도 없다.”

‘오리발’, ‘피땀’, ‘개뿔, 쥐뿔’은 관용어에서 형태가 축소되어 생성된 융합합성어로, 이런 현상은 속담에서 관용어가 생성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속담에서 형태는 축소되고 의미가 전의되어 관용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관용어가 생성되듯이 관용어에서 형태가 축소되고 관용의미가 융합합성어 자체에 의미가 전이된 것이다. 관용어에서 생성된 융합합성어의 의미는 관용어를 알고 있다면 예측 가능하다. 소수의 형태로 대부분의 융합합성어는 단어 자체의 기본의미와 관련이 없으므로 순수한 다의어와는 구별된다.¹⁹⁾

ㄴ. 물을 들이다 → 물들이다

감투을 쓰다 → 감투쓰다

국수를 먹다 → 국수먹다

곳을 보다 → 곳보다

금이 가다 → 금가다

나사가 빠지다 → 나사빠지다

19) 지경숙, 『국어 관용어의 의미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26쪽.

낙인을 찍다 → 낙인찍다
 낮을 가리다 → 낮가리다
 낮이 뜨겁다 → 낮뜨겁다
 덜미를 잡다 → 덜미잡다
 독을 품다 → 독품다
 땀을 들이다 → 땀들이다

격조사와 접속조사는 구어체에서 생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주로 체언만으로도 격 관계가 분명할 때 나타난다. 관용어에서도 조사 생략 현상이 나타나 융합합성어 형태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 구별이 어렵다. (ㄴ)은 관용어에서 서술어 앞의 조사가 생략되어 형태적으로 합성어로 보이는 것들이다. (ㄴ)의 예들은 융합합성어와 형태상 같으나 이들은 분명히 관용어이다. 융합합성어인지 관용어인지 구별을 위해서는 조사를 삽입해보면 된다. 융합합성어는 관용어보다 단어 사이의 결합이 강하여 조사의 삽입이나 수식이 불가능하다.

(ㄴ)과 (ㄷ), (ㄹ), (ㄱ)은 관용어와 융합합성어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들 모두 때에 따라 관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융합합성어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융합합성어도 속담과 언어처럼 관용어와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고 교집합을 이루는 관계로 봐야한다.

2.3. 기타

가. 은어·전문용어

은어는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은어는 한 집단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언어로써 관용표현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어 왔었다. 관용표현은 대중성을 필수로 하는 데 은어는 대중성을 띄게 되면 더 이상 은어라 할 수 없다. 은어는 집단 밖의 사람이 의미를 알게 되면 다른 단어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단어가 바뀐다.

‘얼음’과 ‘떨’은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이다. 마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마약을 하거나 판매하는 집단 사이에서 은어로서 [마약]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집단 밖의 사람들이 ‘얼음’과 ‘떨’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다른 단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얼음’과 ‘떨’의 의미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마약 집단 안에서의 사용 가치가 없어졌고, 단어가 갖고 있던 [마약]이라는 의미는 없어진다. 대중성을 갖게 되면 관용표현의 필수적 특성인 새로운 의미가 사라져서 관용표

현일 수 없다.

은어를 관용표현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관용어와 은어 모두 일정한 언어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관용어는 언어로 구별되는 집단 안에서 통용되고, 은어는 더 작은 집단 안에서 통용된다. 집단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관용어는 같은 언어권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언어권 밖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권을 기준으로 관용표현을 분류하면 모든 한국어가 관용표현이 되버리고 만다. 은어를 관용표현으로 분류한 것은 근거가 잘 못 되었다. 관용어 중 은어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골(을) 때리다 → [웃기다]

깡통을 차다 → [빌어먹게 되다]

골로 가다 → [죽다]

콩밥을 먹다 → [교도소 생활을 하다]

물을 먹다 → [봉변을 당하다]

은어로 사용되던 단어들이 대중성을 갖게 되면서 형성된 관용어로 보이는 예시들이다. 은어가 대중성을 얻게 되면서 은어로서의 은비성이 없어지고, 관용어가 된 경우이다. 은어가 관용어의 생성에 언어재가 되어 핵심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어에서 생성된 관용어가 곧 은어가 관용표현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짹새 [경찰]’, ‘큰집’ [교도소], ‘형님’ [두목], ‘선수’ [사기꾼], ‘잠수 타다’ [잠적하다] 등은 언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 되었다. 전문용어와 은어 등 기존의 특정 집단에서 사용되던 특수어들이 인터넷, 드라마, 영화 등에서 노출되면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되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성을 얻었을 때부터 은어가 아니기 때문에 은어 자체는 관용표현의 범주에 들 수 없다.

전문용어는 ‘특수한 집단이나 학문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분야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단어나 어휘’이다. 은어처럼 어떤 특정 집단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기 어려운 어휘이다. 전문용어를 관용표현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인들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문용어가 대중성을 가져 관용표현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문용어는 은어와 성격이 다르다.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문용어는 은어와 달리 대중성을 갖게 되어도 그 의미가 바뀌거나 다른 단어로 바뀌 사용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전문용어를 검색해보고 의미를 알게 되어 사용 빈도가 높아 대중성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문용어는 관용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관용표현이 될 수 없다.

은어와 전문용어는 대중성을 갖게 되어도 관용표현이라 할 수 없다. 은어는 대중성을 얻으면 더 이상 은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고, 전문용어는 관용적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관용표현에 들 수 없다.

나. 상투적 표현·형식표현

상투적 표현은 비유적 표현 중에서 일정한 표현이 반복되어 고정적 형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쓰이게 된 것들이다. 상투적 표현을 관용표현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상투적 비유표현이 고정적 형식으로 쓰이면서 관용표현이 되었다고 본다. 상투적 표현은 특정한 상황에서 항상 특정한 표현이 대응되어 쓰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발화 상황에서 의미를 재해석하면 강조를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 (1) 배가 남산만하다
상다리가 휘어지다
눈알이 빠지다
하루가 멀다 하다
손 하나 까닥 하지 않는다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는다

(1)은 예시로 들은 관용표현으로 제시된 상투적 비유표현이다. ‘배가 남산만하다’는 [임신 중인 배가 많이 불렀다]는 의미로 임신부한테만 쓰는 굳어진 관용표현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배가 남산만하다’가 비유적 의미로 ‘임신’을 한 임신부에 한해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배가 남산만하다’는 ‘볼록한 배’를 ‘남산’에 빗댄 비유이다. 그렇다면, ‘볼록한 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 (2) “영희야, 그만 먹어. 너 배가 남산만하다.”
“아직 더 먹을 수 있어.”

밥을 많이 먹어서 볼록해진 사람을 보고 ‘배가 남산만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과도하게 뱃살이 찐 사람한테도 “운동해야겠어요. 배가 남산만해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눈알이 빠지다’도 비유 표현으로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관용어가 아니라 보통의 비유적 표현으로 봐야한다. ‘눈알이 빠지다’의 예시도 보자.

- (3) ㄱ.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알이 빠질 뻔 했어.”

ㄴ. “야근했더니 눈알이 빠질 거 같네.”

ㄷ. “열이 높아서 눈이 빠질 거 같아.”

(3ㄱ)은 [기대하는 일이나 그리워하는 사람을 몹시 애타게 기다림]을 의미한다. (3ㄴ)은 [무리해서 일을 해서 피로가 심하다]를 의미한다. 둘 다 실제로 눈알이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다리는 것’과 ‘피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눈알이 빠지다’는 (3ㄷ)의 ‘눈이 빠지다’로도 쓰일 수 있다. 의미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눈알이 빠지다’는 ‘배가 남산만하다’와는 달리 관용어로 보는 게 맞다. ‘눈알이 빠지다’는 관용어로 그 관용의미는 불투명하다. ‘배가 남산만하다’는 ‘불룩한 배 → 남산’이라는 비유가 있지만 ‘눈알 또는 빠지다 → 학수고대, 피로’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상다리 휘어지다’는 [음식이 많음]을 의미한다.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밥상이 무거운 상태를 밥상이 음식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휘어질 거 같음을 비유한 관용어이다.

‘하루가 멀다 하다’는 ‘하루가 멀다 하고’의 활용형으로 주로 쓰인다.

(5) ㄱ. 그녀는 내 사무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다.

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사람이 요새는 좀 뜸하네.

ㄷ. 하루가 멀다 하고 우당탕탕 싸워도 벌써 부부 인연이 20년이 넘었다.

ㄹ. 동수는 가만히 집에 붙어 있지를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발발거리며 돌아다녔다.

(6) 그녀는 내 사무실로 *하루가 멀다 하다 / *하루가 멀다 하며 / *하루가 멀기 때문에 / *하루가 멀다 하므로 찾아온다.

예시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의 활용형 외에는 비문이 된다. ‘하루가 멀다 하다’의 기본형이 ‘하루가 멀다 하고’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는 관용어로 관용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손 하나 까닥 하지 않는다.’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각각 일이 많은 데 얹체같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상황, 누군가를 찾으려 애써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쓰인다. (4)의 ‘눈알이 빠지다’와 ‘배가 남산만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고 있다. 관용어도 관용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특정한 상황에 한정하여 쓰인다.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는 비유 표현이라는 개념은 애매모호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상투적 비유표현’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비유에서 비롯된 관용어로 보는 것이 옳다.

형식표현을 상투적 표현의 하나로 관용표현으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형식표현이

란 ‘일반 자유표현과 대립되는 용어로 더 이상 분석될 수 없으며 구성요소들이 완전히 결속되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표현으로 전형적인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일종의 상투적 표현’²⁰⁾이다. 형식표현은 일종의 상투적 표현인데, 대표적 형식표현으로 인사말을 들 수 있다.

- (1) ㄱ. 안녕하세요.
 - ㄴ. 여보세요. 누구세요?
 - ㄷ. 식사하셨어요?
 - ㄹ. 오랜만이네요. 건강하시죠?

인사할 때, 전화를 받을 때, 헤어질 때 등 전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형식표현이지만, (1ㄷ)의 경우 [식사하셨어요]의 기본 의미와 [안녕하세요]의 관용적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어의 중요한 특성인 중의성을 갖는 관용표현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형식표현은 축어적 의미 외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발화 상황에 따라 반사적으로 쓰이는 표현일 뿐이다.

‘식사하셨어요?’가 [안녕하세요]의 의미로 쓰일 때는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식사하셨어요]의 기본 의미에 발화 상황에 따라 [안녕하세요]의 의미가 담겨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발화 상황을 가정해보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 즈음, 하루 종일 마주치지 않다가 처음 마주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대신 “식사하셨어요?”를 발화함으로서 인사말로 사용한 것이지 진짜 식사를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다.

상투적 비유표현과 형식표현은 어떤 상황일 때 사용 빈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발화 상황에 맞게 바뀌어 사용되며 상황에 의해 추가적인 의미를 담아 발화할 수 있지만 형식표현이 관용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ㄱ. “식사하셨어요? 저는 아직 못 먹었는데.”
→ [함께 밥 먹어요.]
- ㄴ. “식사하셨어요? 어디서 드셨어요?”
→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 ㄷ. “식사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 [인사말]
- ㄹ. “오랜만이네요. 식사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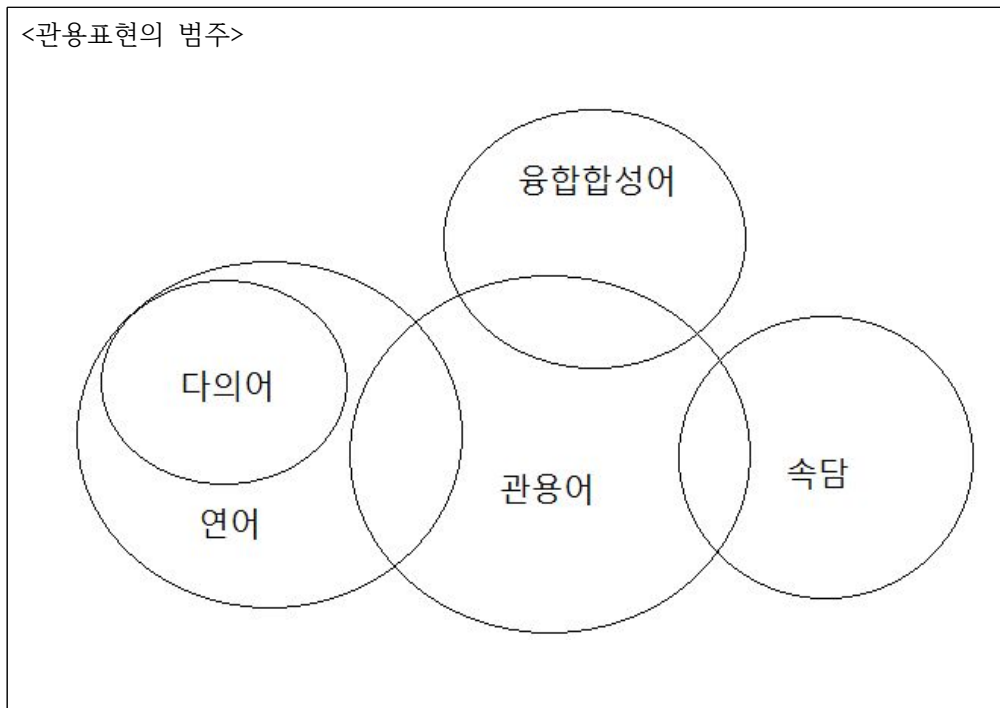
20) 주영진,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되기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19쪽.

→ [인사말]

(ㄱ)은 식사 시간이 되어 ‘함께 밥을 먹자’는 의도를 갖고 식사를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실제 식사를 했는지 여부보다 자신이 아직 밥을 못 먹었고,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봐야한다. (ㄴ)은 식사 시간 이후에 실제 어느 식당에서 어떤 메뉴로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해서 식사를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당연히 밥을 먹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ㄷ)과 (ㄹ)은 식사 시간 즈음해서 만난 상대방에게 인사말 대신 식사했는지를 물어보면서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다.

형식표현은 관용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발화 상황에 따라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발화했는지에 따라 발화 의도가 다를 뿐이다. 모든 발화 상황에는 발화 의도가 있고, 특정 상황에서 사용빈도가 높다고 관용표현이라 할 수는 없다. 즉, 형식표현은 관용 의미를 갖지 않는다. 상투적 비유표현과 형식표현은 둘 다 관용표현이라 할 수 없다.

관용의미의 존재 여부로 관용표현을 판정한 결과 관용어, 속담, 의미적 연어, 융합 합성어는 관용표현으로, 은어, 전문용어, 형식표현, 상투적 비유표현은 관용표현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관용표현의 범주에 들어갈 개념들을 판정하면서 관용어와의 관계도 살펴본 결과 관용표현의 하위 범주들은 모두 관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담과 관용어, 관용어와 융합합성어는 서로 생성 언어재가 되면서 교집합 관계에 있으며, 연어도 관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어 중 ‘다의어+다의어’ 형태는 관용어와 의미적 연어 사이에 존재하며 관점에 따라 관용어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연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관용어와 의미적 연어 사이에 존재하며 교집합 관계를 이룬다고 본다. 다의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확장 의미로 쓰이지 못하고, 연어로 쓰이기 때문에 연어에 포함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관용표현의 범주를 설정해보면 다음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관용표현의 유연성

관용표현은 굳어진 결합으로 고정성이 강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고정성은 관용표현의 구성요소 간에 결합이 강하여 일반문과 같은 자유로운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관용표현은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있어 일반문보다 활용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관용표현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많은 관용표현이 활용가능 하다.

관용표현의 또 다른 고정성은 관용 의미가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는 관용 의미에 대해 ‘의미적으로 화석화되어 있다’거나 ‘굳어진 은유 표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²¹⁾ 전통적 견해에서 굳어진 관용 의미는 직설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관용어에 따라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어 의미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용표현이 고정성을 갖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어 어느 정

21)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의미는 합성적인가 비합성적인가』, 담화 · 인지언어학회, 「담화 · 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166쪽.

도 유연성을 갖는다. 관용표현의 활용이 가능한 것과 관용 의미의 예측이 가능한 것은 관용표현의 고정성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표현의 특성을 ‘유연성’이란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관용표현의 유연성은 형태·통사적 유연성과 의미적 유연성으로 분류하여 봐야한다. 형태·통사적 유연성이란 관용표현의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미적 유연성은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어 관용 의미를 예측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관용표현의 고정성은 없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관용 의미는 하나의 단어로 고정되어 쓰이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고정성은 틀린 것이 아니다. 관용표현의 유연성도 존재하나 절대적인 특성은 아니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관용표현에 대한 유연성을 전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하위 범주인 융합합성어, 속담, 연어, 관용어의 유연성의 정도를 비교해보고 관용어의 유연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관용표현의 유연성이 드러나면 관용표현의 특성에 고정성과 함께 유연성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1. 형태·통사적 유연성

관용표현은 둘 이상의 구성요소가 굳어진 결합체이다. 고정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관용표현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관용표현의 형태·통사적 유연성은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확인되었다. 관용표현의 다양한 형태·통사론적인 제약은 의미적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²²⁾ 문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도 관용 의미가 상실되면 더 이상 관용표현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구가 통사적 요인에 따라 수식한다면, 관용어는 관용 의미에 따라 수식이 결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바람을 피우다 [배우자 아닌 이성과 사귀다]

→ “그놈이 또 바람을 피웠어?” [그놈이 또 다른 여자랑 사겼어]

→ “그놈은 왜 바람을 자꾸 피우는 거야?” [그놈은 왜 자꾸 다른 여자랑 사귀는 거야]

→ “그놈, 이번 바람은 심각하게 피웠나봐.” [그놈, 이번엔 다른 여자랑 심각하게 사겼나봐]

→ “*그놈 뜨거운 바람을 피웠지.” [*그놈 뜨거운 여자랑 사겼지]

손(을) 들다 [포기하다]

→ “나는 너에게 완전히 손을 들었다.” [나는 너를 완전히 포기했다]

→ “나는 너에게 두 손을 들었다.” [나는 너를 완전히 포기했다]

→ “나는 너에게 두 손 다 들었다.” [나는 너를 완전히 포기했다]

22) 김진해, 『관용어의 통사·의미론적 제약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9쪽.

→ “나는 너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는 너를 완전히 포기했다]

관용표현의 형태·통사적 유연성에는 ‘융합합성어 → 속담 → 의미적 연어 → 관용어’ 순서로 차등이 있다.²³⁾ 관용어의 결합이 제일 강할 것 같지만, 융합합성어의 결합이 가장 강하다. 융합합성어는 고정성이 강하여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며, 구성요소의 대치가 불가능하지만, 관용어는 가능하다. 이것은 융합합성어가 관용어보다 고정성이 더 강하여 화석화된 형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²⁴⁾ (ㄱ)은 확장의 불가능을, (ㄴ)은 대치의 불가능을 보인다.

ㄱ. 돌아가다 [죽다] → *돌아서 가다
밤손님 [도둑] → *밤과 손님, *밤의 손님
바지사장 [거짓 사장] → *바지의 사장, *바지인 사장

ㄴ. 두꺼비집 [전류 차단기] → *개구리집
까치발 [발꿈치를 든 발] → *제비발, *참새발

관용어에도 체언형과 용언형 관용어의 유연성에 차이가 있다. ‘명사+명사’ 형태의 체언형 관용어는 ‘명사+서술어’ 형태의 용언형 관용어보다 유연성이 약하다. 체언형 관용어는 수식, 삽입, 주제화가 불가능하나 용언형 관용어는 가능하다. 앞에서 제시한 형태·통사적 유연성의 정도는 ‘융합합성어 → 속담 → 의미적 연어 → 체언형 관용어 → 용언형 관용어’ 순서로 제시할 수 있다.

강 건너 불구경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양]
→ *바다 건너 불구경
→ *강 건너 큰 불구경
→ *불구경은 항상 강 건너 일이지
→ *항상 불구경 강 건너 일이지

땅을 칠 노릇 [몹시 분하고 애통함을 이르는 말]
→ *땅을 탕탕 칠 노릇
→ *딱딱한/질퍽한/남의 땅을 칠 노릇

막다른 골목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3) 김혜숙(1992)에서는 관용표현의 형태적 고정성의 정도를 ‘합성어 → 속담 → 금기담 → 형식표현 → 속어 → 은유표현 → 익은말’ 순서로 제시한다.

24) 김형배, 『사동과 피동표현의 속어의 고정성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16권 0호, 2005, 8쪽.

- *골목에 도착했는데 막다른 곳이야
- *사거리의/깜깜한 막다른 골목
- *막다른 어두운 골목

속담은 비유의미가 유지되는 한 활용이 가능하다. 속담은 문형의 유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비유적 의미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가진 다른 속담으로의 변형이 가능하다.²⁵⁾ 이는 관용어가 관용 의미를 잃지 않는 한 어휘 변형이 가능한 것과 동일하다. 속담은 중복문일 때 도치가 가능하지만 관용어는 도치가 불가능하다.

- ㄴ. 까마귀가 오디를 마다하랴.
- 까마귀가 보리를 마다하랴.
- 까마귀가 메밀을 마다하랴.

가시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가마솔이 노구솔 밑을 검다고 한다.
까마귀가 까치보고 검다 한다.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 통사 구조와 비유적 의미는 같으나 지역에 따라 어휘가 변형됨.

- ㄷ. 사람은 헛 사람이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헛 사람이 좋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진다.

가루 팔러 가니 바람이 불고 소금 팔러 가니 이슬비 온다.
소금 팔러 가니 이슬비 오고 가루 팔러 가니 바람이 분다.

- 속담은 중복문 형태일 때 도치가 가능함.

25) 김진식, 『관용어와 속담의 특성 고찰(Ⅰ)』,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제13집, 1996, 26쪽.

또한 속담은 발화시 ‘-듯이, -처럼, -같이’ 등의 직유표지나 ‘-(고)하니, -(고) 하더니/ -더니’ 등의 인유표지를 붙여 자유롭게 인용되고 있으나 관용어는 이런 형식으로 쓰이면 관용성을 잃게 된다.²⁶⁾ 관용어에 비유표지가 결합하면 관용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만 남아 관용표현이라 할 수 없다. 속담의 비유의미에 비해 관용어의 관용의미가 고정성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다.

의미적 연어와 관용어의 유연성의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 연어는 늘 결합하는 단어가 문맥상에 함께 쓰일 때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의미적 연어가 다의어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제약이다.

눈이 나쁘다 [시력이 나쁘다]

→ “나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어.”

→ “나는 눈이 어릴 때부터 나빴어.”

→ “눈은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면 나빠진다.”

→ “나쁜 눈 때문에 안경을 써서 불편해.”

머리가 길다 [머리카락이 길다]

→ “너는 군인인데 머리가 길다.”

→ * “머리가 너는 군인인데 길다.”

→ “머리가 많이 길었다.”

→ “긴 머리 때문에 혼났어”

가. 어휘 변형

ㄱ. 쥐뿔(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 개뿔(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 “쥐뿔 / 개뿔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잘난 척이야.”

손(을) 찢다 [하던 일을 그만두다]

→ 손(을) 닦다, 손(을) 빼다 [하던 일을 그만두다]

→ “난 사업에서 손 찢었어 / 닦았어 / 뺐어.”

쇼(를) 벌이다 [거짓 행동을 하다]

26) 김진식, 『관용어와 속담의 특성 고찰(Ⅰ)』,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제13집, 1996, 28쪽.

→ 쇼(를) 하다 [거짓 행동을 하다]
→ “괜히 눈물을 흘리며 쇼를 벌이는 / 하는 거야.”

수중에 떨어지다 [소유가 되다]
→ 수중에 넣다, 손에 떨어지다 [소유가 되다]
→ “적지 않은 배당금이 우리 수중/손에 떨어질/넣을 것이다.”

안개에 싸이다 [밝혀지지 않다]
→ 베일에 싸이다 [밝혀지지 않다]
→ “어제 일어난 살인 사건은 아직 안개/베일에 싸여있지.”

어깨(를) 겨루다 [대등하게 비교하다]
→ 어깨(를) 나란히 하다 [대등하게 비교하다]
→ “이 분야에서는 나와 어깨를 겨룰/나란히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ㄴ. 짝이 노랗다 [장래성이 없다]
→ “별써부터 어머니 지갑을 뒤지다니 그 아이도 짝이/짝수가 노랗다/누렇다/셋노랗다.”

눈이 빨갛다 [이익을 추구하다.]
→ “젊은 사람들이 돈에 눈이 빨갛게/시빨갛게/빨갛게 되다.”

ㄷ. 간이 붓다 [지나치게 대담해지다]
→ “나한테 덤비다니 이놈이 간이/간덩이가 부은 모양이군.”

애가 타다 [몹시 초조하다]
→ “그동안 형님의 소식을 몰라 식구들이 무척 애를/애간장을 태웠다.”

관용어는 고정성이 강하여 결합하는 구성요소의 어휘가 바뀔 수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어휘를 변형해도 관용의미가 변하지 않는 경우 어휘 변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휘 변형은 관용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변형되거나, 색채어의 어휘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짝수’는 ‘짝’, ‘간덩이’는 ‘간’, ‘애간장’은 ‘애’를 강조하는 말이다. 특히 색채어가 포함된 관용어는 모두 어휘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색채어는 시각에 의해 인식되는 어휘로 사람의 직관에 깊은 관련이 있다. 색채어의 의미는 비유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나 거의 의미 변화가 없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강세의 약함과 덜함 정도의 차이만 있어서 관용어에서 색채어의 변형은 관용 의미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4) 틈이 나다 / 틈이 생기다 / 틈이 벌어지다

(4)처럼 ‘명사+서술어’ 형태의 관용어에서 서술어의 변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앞의 명사 ‘틈’이 다의어가 되어 ‘사람들의 관계’라는 의미 확장이 일어나 더 이상 관용어가 아니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²⁷⁾ 그러나 본고의 예시들을 보면 서술어와 목적어 모두 어휘 변형이 가능하며, 다의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어휘 변형을 해도 의미의 변화도 없고, 다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휘 변형이 가능함을 보였다.

나. 내적 확장

뱃가죽이 두껍다 [염치없이 뻔뻔하다]

→ “저놈은 뱃가죽이 꽤나 두꺼워.”

불똥(이) 튀다 [재앙이나 화가 미치다]

→ “불똥이 옆희한테 튀었어.”

아귀(가) 맞다 [빈틈없이 들어맞다]

→ “그의 이야기는 앞뒤 아귀가 딱딱 맞는다.”

창자가 끊어지다 [슬픔이나 분노 따위가 너무 커서 참기 어렵다]

→ “창자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다.”

속(을) 굶다 [비위를 살살 건드리다]

→ “왜 자꾸 속을 살살 굶는 거야?”

팔자(가) 늘어지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다]

→ “아주 팔자가 쫄 늘어졌구만.”

피를 말리다 [몹시 괴롭히다]

→ “이번 경기는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아 양 팀 감독의 피를 반짇 말렸다.”

미역국을 먹다 [낙방하다]

→ “공무원 시험에서 5년째 미역국을 계속 먹고 있어.”

27) 박세영, 『국어 관용구 판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34쪽.

내적 확장(삽입)도 관용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던 것이다. 관용어는 상징어, 부사어의 수식 등을 받을 때 내적 확장이 가능하다. ‘창자가 끊어지다’, ‘미역국을 먹다’는 어휘 변형은 불가능하지만 내적 확장은 가능한 관용어이다.

다. 축약

ㄹ. 오리발(을) 내밀다 [모른체하다]

→ “너 어디서 오리발이야?” [너 어디서 모른체야?]

오지랖(이) 넓다 [아무 일이나 참견하다]

→ “너랑 관계없는 일이야. 오지랖 그만둬.” [너랑 관계없는 일이야. 참견 그만둬.]

바가지(를) 굶다 [잔소리하다]

→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또 바가지겠지.”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또 잔소리하겠지.]

꼬리가 길면 밟힌다 [나쁜 일은 결국에는 들키고 만다]

→ 꼬리가 길다 [못된 짓을 오래 두고 계속하다], 꼬리가 밟히다 [행적을 들키다]

→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 “경찰한테 꼬리가 밟혔어”

(ㄹ)의 관용어들은 형태가 축소 된 형태이다. 이때 축소 된 형태의 의미는 관용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관용어의 축소형에 관용 의미가 침투되어 가능해진다. 이는 통시적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관용어로 오랜 시간 쓰이면서 관용 의미가 한 쪽의 구성성분으로 침투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A+B’의 형태에서 ‘A’ 또는 ‘B’로 의미가 침투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관용어의 어휘적 변화 양상>²⁸⁾

구 구성	→	관용어 형성	→	개별 어휘에 관용 의미 획득
[미역국(을) 먹다]		[미역국(을) 먹다]	구성 어휘에 관용 의미 침투	[미역국] “낙방”

‘꼬리가 길면 밟힌다’의 경우 속담에서 관용어 ‘꼬리가 길다’와 ‘꼬리가 밟히다’가 생성된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축소가 발생한 것은 ‘꼬리’에 중심의미가 침투하여 가능한 것이다. 최경봉(2015)은 관용어의 축소와 관련하여 먼저 관용어를 ‘구절 단위의 은유 표현’과 ‘단어 단위의 은유 표현’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용어의 분류는 관용어의 축약과 관련 있음을 보인다.

- ㄱ. 오늘 다라 아내가 심하게 바가지를 굶는다.
- ㄴ. *어제 저녁 늦은 귀가에 아내는 하루종일 큰 바가지를 굶었다.
- ㄷ. ?오늘 따라 아내가 심한 바가지를 굶는다.
- ㄹ. 아내의 심한 바가지가 마음에 상처를 남긴 적이 많다.

(ㄴ)과 (ㄷ)은 비문의 정도성이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ㄷ)은 수용 가능성이 있는 반면, (ㄴ)은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러한 현상은 (ㄹ)의 ‘바가지’가 ‘바가지를 굶다’의 관용 의미 [잔소리하다]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ㄹ)이 ‘바가지를 굶다’에서 형태적으로 축소되어 ‘바가지’로 쓰이면서, 그 관용 의미를 계승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경봉(2015)는 ‘굶다’가 삭제되면서 서술어인 은유적 의미 ‘잔소리하다’가 ‘잔소리’라는 명사 의미²⁹⁾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관용어가 축약되면서 관용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지만 서술어인 은유적 의미도 명사 의미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앞의 예시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꼬리가 길면 밟힌다’의 축소 의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꼬리’의 의미가 [흔적]이라는 명사 의미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꼬리가 길다’, ‘꼬리가 밟히다’의 형태로 축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 주제화

불똥이 튀다 [화가 미치다]
→ “불똥이 왜 너한테 튀냐. 철수한테 튀었어야 맞는 건데”

술독에 빠지다 [술을 많이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
→ “술독에는 박씨가 빠졌지, 김씨는 술독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야.”

손가락질 하다 [비웃거나 비난하다]

28) 김진해, 『관용어의 통사 · 의미론적 제약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47쪽.

29) 최경봉, 「어휘의미론」, 한국문화사, 2015, 232~233쪽.

→ “손가락질을 왜 애꿎은 사람한테 하는 거야, 손가락질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침(을) 삼키다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다, 자기 소유로 하고자 몹시 탐내다]

→ “침 좀 그만 삼켜라,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주제화가 가능한 관용어는 ‘명사+서술어’ 형태이다. 주제화는 구성요소인 명사에 중심의미가 침투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화는 명사와 서술어의 결합이 깨지는 형태인데 가능한 이유는 명사에 중심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중심의미가 명사에 있어서 주제화가 가능한 것이다. 관용어의 의미에는 중심의미를 갖는 중심핵과 주변 의미를 갖는 주변핵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심핵을 갖는 단어는 주제화, 축약, 내적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마. 대립

ㄱ. 가면을 쓰다 - 가면을 벗다
간이 크다 - 간이 작다
감투를 쓰다 - 감투를 벗다
담을 쌓다 - 담을 허물다
딱지를 떼다 - 딱지를 붙이다
뚜껑을 덮다 - 뚜껑을 열다
막을 올리다 - 막을 내리다
불을 끄다 - 불을 붙이다
뿌리를 박다 - 뿌리를 뽑다
손을 대다 - 손을 떼다
시집을 가다 - 시집을 오다
목소리가 작다 - 목소리가 크다

ㄴ. 눈을 감다 - 눈을 뜨다
보따리를 싸다 - 보따리를 풀다
고개를 들다 - 고개를 숙이다/*내리다
구멍을 메우다 - 구멍을 ?뚫다/구멍이 뚫리다³⁰⁾

(ㄱ)은 어휘·의미적으로 대립쌍을 갖는 관용어들이다. ‘가면을 쓰다’는 [본심을 감추다], ‘가면을 벗다’는 [본심을 드러내다]로 어휘와 관용 의미 둘 다 대립이 성립한다. (ㄴ)은 어휘적으로 대립하는 관용어들이다. (ㄱ)과 달리 (ㄴ)은 의미의 대립은 성립하

30) 김진해, 『관용어의 통사 의미론적 제약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51쪽.

지 않는다. ‘눈을 감다’의 [죽다], ‘눈을 뜨다’의 [이치를 깨닫다]는 대립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용어의 대립은 관용어와 연어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대립쌍이 있으면 더 이상 관용어가 아닌 연어로 보았다. 그러나 (L)의 경우를 보면 관용어에 대립쌍이 있는 것이 곧 연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상 관용어는 입말에서 주로 쓰이면서 이렇듯 그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묘미를 살리면서 다양한 꼴 변화를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³¹⁾ 관용어의 형태적 결합이 굳어진 것은 맞지만 그 고정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관용어는 형태·통사적으로 투명한 구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 관용어는 변형이 가능하며 그 내부 구조가 깨질 수도 있다.³²⁾ 특히 ‘명사+서술어’의 용언형 관용어는 체언형 관용어보다 변형이 쉽다는 것은 관용표현의 일반적 특징으로 지적되는 사실 중 하나이다.³³⁾ 명사에 중심의미가 있고 서술어는 주변의미를 갖고 있어 명사는 고정되고 서술어의 변형이 가능하다. 축약, 주제화, 대립의 예들을 보면 중심의미를 갖는 명사는 고정되어 있고 서술어만 변화하는 걸 볼 수 있다.

어떤 관용어가 어휘 변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관용어가 축약, 주제화, 내적 확장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관용어의 형태 활용이 꽤나 자유롭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론 관용어는 분열문의 경우 불가능하고, 대명사화는 관용어 전체가 대명사화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결합이 일반 구에 비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3.2. 의미적 유연성

관용어는 그 구성요소의 합으로는 추출할 수 없는 관용의미를 갖는 비합성적인 표현이다. 합성성의 원리는 구성요소의 합으로 의미를 형성한다는 원리이다. 합성성에 따르면 단어 ‘A’와 ‘B’의 의미 합은 ‘AB’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구문에서는 구성요소의 합으로 의미가 형성되지만 관용어의 경우 구성요소의 합으로 관용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성성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비합성성으로 인해 관용의미는 예측 불가능하다.

관용어의 구성요소를 ‘A’와 ‘B’라 가정하면 ‘A+B=AB’의 의미 구조여야 하지만 관

31) 이희자,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30권 0호, 1995, 419쪽.

32) 김진해, 『관용어의 통사 의미론적 제약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29쪽.

33) 안소진, 『관용표현의 통사적 변형에 대한 시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와 언어학」 56권 0호, 2012, 169쪽.

용어는 'A+B=C'의 의미 구조를 갖는다. 관용 의미를 그 구성요소의 합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직설의미와 관용의미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관용표현 가운데는 직설 의미로 인해 관용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관용 의미가 직설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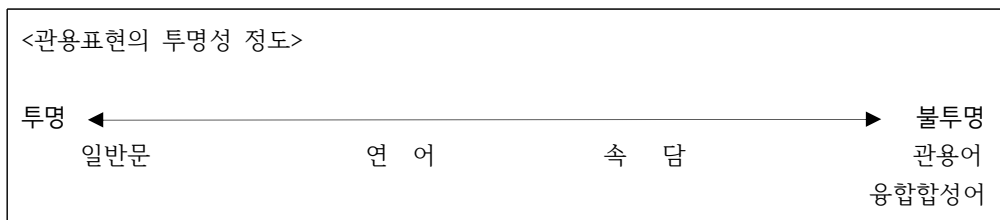
관용어가 의성어와 의태어를 수식할 때는 직설의미를 수식한다.

속을 부글부글 끓이다 → [*몹시 걱정이 되어 마음을 부글부글 졸이다]

‘속(을) 끓이다’의 관용 의미는 ‘부글부글’을 수식하지 못한다. ‘부글부글’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끓이다’의 직설 의미이다. 의성·의태어가 직설 의미를 수식하는 것은 관용어의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가 일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곧 관용 의미가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합성성을 특성으로 갖고 있는 관용어는 당연히 의미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관용어 중에는 관용 의미가 투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관용어의 의미가 투명하다는 것은 관용표현이 의미적으로도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장에서 관용표현의 범주에 관용어, 연어, 속담, 융합합성어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두 관용의미를 갖고 있는데, 관용의미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어가 가장 투명하고, 속담이 연어보다 불투명하고 관용어보다는 투명하며, 융합합성어와 관용어가 가장 불투명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크게 연어와 속담, 융합합성어, 관용어로 분류했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연어를 통사적 연어와 의미적 연어로 분류하여 관용 의미가 없는 통사적 연어를 일반문과 근접하게 둘 수 있다. 또 속담과 관용어 사이에는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를 둘 수 있다.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는 의미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속담의 의미로 관용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어 중에서 가장 투명하게 볼 수 있다. 대체로 구절이나 문장 전체에서 은유 등 비유에 의해 의미 확대를 겪는 속

담은 의미 해석에서 투명성이 연어구와 관용구의 사이에 놓인다.³⁴⁾

관용표현의 투명성 정도는 관용표현의 의미 구조를 기호화하여 나타냈을 때 비교가 쉽다.

ㄱ. 일반문 : $A+B=AB$

→ 밥을 먹다 : ‘밥(A)+먹다(B)’ = [쌀로 만든 음식을 입에 넣어 소화시키다 (AB)]

ㄴ. 연어 : $A+B=Aa+B$, $A+B=A+Bb$

→ 물을 틀다 : ‘물(A)+틀다(B)’ =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나오게 하다 ($Aa+B$)]

→ 담배를 먹다 : ‘담배(A)+먹다(B)’ = [담배를 피우다 ($A+Bb$)]

ㄷ. 속담 : $A+B=AB+\alpha$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AB+\alpha$)]

ㄹ. 관용어/융합형성어 : $A+B=C$

→ 간(을) 녹이다 : ‘간(A)+녹이다(B)’ = [애교 부리다(C)]

→ 낮(이) 간지럽다 : ‘낮(A)+간지럽다(B)’ = [어색하여 부끄럽다(C)]

일반문은 구성요소의 의미가 그대로 합쳐져 매우 투명하다. 연어는 구성요소 중 하나가 다의어화 되면서 결합된 형태이다. 다의어는 확장 의미로 불투명하지만, 다의어와 결합한 구성요소는 직설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투명한 구성요소에 의해 확장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다의어가 선택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의어의 확장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비유로 인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연어의 의미 구조에 ‘Aa’와 ‘Bb’은 비유로 생성된 확장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속담의 의미는 속담 자체에서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다. 속담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례를 들어 비유한 표현이기 때문에, 속담의 경우 의미가 관용어보다 투명하다. 속담의 관용적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속담의 비유적 특성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사공이 많다고 배가 바다를 벗어나 산으로 가지 않는다. ‘사공이 많다’는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이 많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산으로 간다’는 ‘일의 방향을 잃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갖는 속담에 교훈적 의미(α)가 더해져서 관용의미를 갖는다. 즉, 속

34) 김서형, 『의미 확대와 관용 표현의 유형』,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67권 0호, 2013, 281~282쪽.

답은 연어보다는 불투명하고 관용어보다는 투명하다.

관용표현 중 관용어와 융합합성어가 가장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융합합성어가 더 불투명하게 느껴진다. 융합합성어는 새롭게 생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관용적 의미밖에 없다. 관용적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곧 예측 불가능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관용어의 의미는 불투명한 것이 통설이지만 투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앞에서 관용어가 대립쌍을 갖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다. ‘간이 작다 [담력이 약하다, 대범하지 못하다]’와 ‘간이 크다 [담력이 있다, 대범하다]’로 대립쌍이 성립하는 것은 두 관용어가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소 투명성을 얻게 된다.

최근의 연구에는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구성요소의 합으로 관용의미가 생성된다는 관점이 등장했다. ‘관용어의 의미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점은 전통의 미론적 관점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다.³⁵⁾ 관용표현의 특성은 대략 밝혀졌지만 그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관용의미도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도 있다.

관용의미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문금현(1999), 최경봉(2002), 박만규(2003), 안연희(2006), 심지연(2009), 최수진(2013) 등이 있다. 관용 의미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관용어의 분류를 시도한 연구들이다. 최경봉(2002)에서는 관용어를 합성성의 정도에 따라 불투명, 반-불투명, 반-투명, 근접투명으로 분류했다.

불투명 → 구성요소의 의미로는 알 수 없는, 사은유화 된 관용어
예시) 돌아가시다, 비행기를 태우다, 바가지로 굶다, 바가지를 쓰다,
학을 떼다, 물을 먹다, 눈이 맞다, 귀가 빠지다

반-불투명 → 역사적 · 사회적 요인과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
예시) 국수 먹다, 머리 었다, 그림의 떡, 도장을 찍다, 상투를 틀다

반-투명 → 상황과 관련된 비유표현이 구성요소인 관용어
예시) 가슴을 펴다, 입이 벌어지다, 땀을 빼다, 애가 타다, 등골이 빠
지다, 머리를 식히다, 목을 자르다

근접투명 → 다의어가 포함 된 관용어
예시) 발이 넓다, 손이 크다, 손이 모자라다, 눈이 높다, 기가 죽다,

35)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의미는 합성적인가? 비합성적인가? - 인지의미론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고찰』, 담화 · 인지언어학회, 「담화 · 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165쪽.

최경봉(2002)에서 설정한 ‘근접투명’은 관용어가 아니라 의미적 연어이다. 구성요소 중 어느 한 쪽이 다의어로 확장 의미로 쓰일 때 선택 제약을 받아 접속 할 수 있는 단어가 제한되고, 항상 굳어져 같은 형태로 쓰인다. 근접투명은 의미적 연어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투명’ 층위의 관용어들은 상황과 관련된 비유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예시를 보면 ‘가슴을 펴다’에 어떤 상황과 관련된 비유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반-불투명 층위의 역사적·사회적 요인으로 생성된 관용어는 언중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모국어 화자들에게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갖는 경우이다.

반-불투명 층위의 관용어는 인지의미론에서 말하는 ‘환유로 동기화되어 관용어의 의미가 합성되는 경우’와 일치한다. ‘국수를 먹다’의 ‘국수’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대접하는 음식이다. 결혼식에 가면 으레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이라는 ‘이상적 인지 모형’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문금현(1999)는 관용어를 의미가 불투명한 유형, 반불투명한 유형, 반투명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문금현(1999)에서는 관용의미의 투명도와 형태·통사적 고정성이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어 불투명한 유형은 형태·통사적 고정성이 강하고, 반투명한 유형은 형태·통사적 유연성이 약한 것으로 보았다. 관용의미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생성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사적 제약이 강해진다고 보았다. 이는 형태·통사적 유연성이 의미적 유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투명도가 높을수록 활용상 제약이 덜해지고 사용 빈도수도 높아진다.

안연희(2006)에서는 가장 불투명한 관용어 층위는 유일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관용어, 관련의미와 공존하여 쓰이지 않는 관용어, 관련의미와 공존하여 쓰이는 관용어로 분류하고 있다. 유일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유일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없다. ‘변죽을 울리다’의 ‘변죽’은 항상 ‘울리다’와 공기하여 쓰인다. ‘변죽’은 [그릇의 가장자리]라는 의미이며, ‘울리다’는 [어떤 물체가 소리를 내다]의 의미이다. ‘변죽을 울리다’의 직설 의미는 [그릇의 가장자리가 소리를 내다] 정도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릇은 소리를 낼 수 없으니 직설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봐야 한다. 직설 의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용 의미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관련 의미와 공존하여 쓰이는 관용어란 문맥에서의 쓰임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이다. 관용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문맥에 존재하여 찾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분류는 기준이 분명하지 못하다. 관용어는 일정한 틀 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문맥이 충분히 제공되면 관용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연(2009)은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은유성, 환유성, 은환유성을 나타내는 관용어와 관습적 지식으로부터 동기화되어 관용 의미를 합성할 수 있는 관용어로 분류했다. 은환유성이 보통인 관용어는 관용 의미 합성성이 보통인 관용어이며, 은환유성이 낮은 관용어는 관용 의미 합성성이 높은 관용어이다.

최수진(2013)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학생들이 불투명하다고 느낀 관용어는 구성요소인 단어가 폐어나 고어가 되어서 관용의미를 예측하기 힘들고, 관용어가 생성된 배경과 함께 이해할 때 관용의미가 이해될 수 있는 유형이다.

반불투명한 관용어는 구성요소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 관용의미의 예측이 가능한 유형으로 상황과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비유표현이 포함된 관용어이다. 반불투명한 관용어는 단어들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투명 관용어는 구성하는 단어 사이에 공기 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직설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 유형이다. 관용 의미를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이해 가능하다.

학생들이 불투명하다고 느낀 관용어의 예시를 보면 세대별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 ‘국수를 먹다’를 예전 결혼식에서 국수를 먹던 관습이 최근에 다양한 음식으로 변화되면서 중년들에게는 ‘국수를 먹다’가 반불투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투명한 것이다. 중년층에서 투명하게 느껴지는 관용어가 중학생한테는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관용어의 투명성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 데, 분명한 것은 관용어의 의미가 투명성을 갖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관용어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합성적이어서, 관용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각각의 의미에서 그 관용 의미를 합성해 낼 수 있는 것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용어 의미들 간에는 합성의 정도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³⁶⁾

관용어 의미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직설의미와 관용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진해(1995)에서는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에 대해 사용 빈도의 관점에서 직설의미로의 사용 빈도가 높은지, 관용의미로의 사용빈도가 높은지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³⁷⁾

36)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84쪽.

37) 김진해, 『관용어의 통사·의미론적 제약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70쪽.

<관용 의미와 직설 의미와의 정도 관계>

직설 의미 (-)					관용 의미 (+)
	물구나무 서다	미역국을 먹다	면사포를 쓰다	시치미를 떼다	
	춤을 추다	국수를 먹다	바가지를 긁다	교편을 잡다	
		못을 박다	파리를 날리다	산통을 깨다	
			바람을 맞다	학(질)을 떼다	
				깨가 쏟아지다	
				감투를 쓰다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직설의미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것은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관용의미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다.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했지만 사용빈도는 개인의 언어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관적인 것이다.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시들은 통사적 연어이고, 맨 오른쪽에 위치한 예시들은 구성요소가 고어가 되어 직설의미로는 쓰이지 않는 것들이다. ‘물구나무 서다’와 ‘춤을 추다’는 명사에 의해 뒤의 서술어가 선택 제약을 받은 통사적 연어로 직설의미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자리한다. 통사적 연어의 오른쪽에 있는 관용어들은 관용 의미와 직설 의미를 둘 다 갖으며,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맨 오른쪽에 있는 예시들의 ‘시치미’, ‘교편’, ‘산통’, ‘학질’, ‘감투’는 고어가 되어 현대에는 직설의미로 쓰이지 않는 것들이다. 역사와 문화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생겨난 관용어였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고어가 된 경우이다. ‘깨가 쏟아지다’는 [오랫하여 몹시 아기자기 하게 재미가 나다]의 관용 의미를 갖지만 직설의미는 성립하지 않는다. ‘깨’와 ‘쏟아지다’의 결합은 비문법적인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가 쏟아지다’는 직설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고, 항상 관용의미로만 쓰이는 관용어가 된다.

맨 오른쪽의 관용성이 가장 강한 층위는 직설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관용 의미로 쓰인다. 관용 의미로만 사용되는 표현도 충분히 관용어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직설 의미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관용어가 아니며, 관용어가 대체로 직설 의미보다는 관용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⁸⁾ 관용의미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는 뜻은 관용어의 관용의미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과 같다. 사용빈도는 기준으로 분류했지만 관용의미의 투명성으

38) 김진해, 『관용어의 통사·의미론적 제약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70쪽.

로 바뀌도 문제가 없다. 관용 의미가 강하면 의미가 불투명한 것이고, 직설의미가 강하면 의미가 투명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관용어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의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데 학자들마다 층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불투명한 층위에 있는 관용어들은 유일구성요소가 포함된 것과 사은유화된 관용어, 고어가 포함된 관용어로 직설의미가 존재하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관용어이다. 중간 층위에는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와 역사·문화와 관련되어 생성된 관용어, 상황과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관용어를 제시한다. 그 하위로 생성된 그 유래를 알고, 관용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와 속담이 축약되어 생성된 관용어를 설정하고 있다. 가장 투명한 층위는 연어를 관용어에 포함하는 경우로 다의어로 구성된 연어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용어의 투명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불투명, 반불투명, 반투명으로 분류한다. 불투명한 관용어는 'A+B=C'의 의미구조로 관용 의미가 합성성에 전면 배치되는 표현이다. 불투명 관용어는 직설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고어가 되어 직설의미가 쓰이지 않는 경우, 유일구성요소를 포함하여 항상 결합하는 단어와만 결합하여 관용의미만 갖는 경우, 은유적으로 굳어져 직설 표현이 없는 관용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간 층위인 '반불투명'에는 구성요소가 역사나 문화, 특정 상황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관용어가 해당된다. 가장 투명한 경우로 보이는 반투명 층위에는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와 신체어 관련 관용어가 해당된다.

가. 불투명

ㄱ. 유일구성요소가 포함된 관용어

큰 코 다치다 [크게 봉변을 당하다]

변죽을 울리다 [넌지시 말하다]

학(질)(을) 떼다 [어떤 것에 질리다]

ㄴ. 사은유화 된 관용어

귀가 빠지다 [태어나다]

간을 빼 주다 [아침하다]

귀를 의심하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다]

발이 넓다 [교제 관계가 넓다]

바늘방석에 앉다 [불안스러운 느낌이 들다]

죽을 쑤다 [일을 망치다]
이(가) 빠지다 [휩손되다]
입에 오르다 [이야깃거리로 되다]

ㄷ. 고어가 포함된 관용어

시치미를 떼다 [모른체하다]
→ 시치미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매의 끈지 속에다 매어 둔 네모꼴의 뿔]

산통을 깨다 [일을 망치다]
→ 산통 [맹인(盲人)이 점을 칠 때 쓰는, 산가지를 넣은 통]

감투를 쓰다 [직위를 차지하다]
→ 감투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衣冠)의 하나]

운(을) 달다 [이유를 대다]
→ 운 [각 시행의 동일한 위치에 규칙적으로 쓰인, 음조가 비슷한 글자]

육갑(을) 떨다 [시덥잖은 말을 하다]
→ 육갑 [육십갑자]

이골이 나다 [익숙해지다]
→ 이골 [잇구멍]

주리를 틀다 [못살게 굴다]
→ 주리 [죄인의 두 다리를 한데 묶고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워 비트는 형벌]

배코(를) 치다 [머리를 밀다]
→ 배코 [상투를 얹히려고 머리털을 깎아 낸 자리]

‘불투명’의 층위에 들어가는 관용어는 직설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 관용어로 직설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관용의미와 직설의미는 어떤 관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불투명하다. 불투명 층위의 관용어들은 모국어 화자들도 외우지 않으면 관용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구성요소 중 다의화를 거친 것이 거의 없으므로 더욱더 의미의 투명성을 가지기 어렵고, 형태적 변이형이 없으며 통사 작용에 대체로 제약을 심하게 받는다.³⁹⁾

(ㄱ)의 ‘큰 코’와 ‘변죽’, ‘학’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로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유일구성요소이다. 항상 ‘큰 코 다치다’, ‘변죽을 울리다’, ‘학을 떼다’의 형태로 관용의미로만 쓰인다. (ㄴ)은 비유표현으로 쓰이다가 굳어져 사은유화 된 관용어이다. (ㄴ)형태의 관용어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관용어의 개념에 부합하는 관용어이다. 즉 관용어 중에서도 가장 관용성이 강한 관용어라 할 수 있다.

(ㄷ)은 고어가 된 단어가 포함되어 직설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원래의 은유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없다. 고어가 포함된 관용어의 경우 명사가 과거의 생활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활 문화와 관련된 명사는 문화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직설 의미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ㄷ)의 직설 의미는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소설, 영화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매체를 통하여 직설 의미를 많이 접한 사람에게는 관용 의미가 투명하게 느껴진다. 관용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불투명한 관용어의 예시들을 보면 관용어의 중요한 의미적 특성인 ‘중의성’도 모든 관용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관용어의 중의성은 직설 의미와 관용 의미를 둘 다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불투명 층위의 관용어의 상당수는 직설 의미가 성립하지 않거나 직설 의미가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아서, 직설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형태들이다. 즉 관용어의 중의성은 절대적인 관용어의 특성이 아니다.

나. 반불투명

： 구성요소가 역사나 문화, 특정 상황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관용어

무대를 밟다 [출연하다]

→ ‘무대’는 ‘공연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단’으로 ‘공연에 출연하기 위해 올라가는 단’이다. 공연에 출연하기 위해 올라가는 단을 밟는 상황은 ‘공연에 출연할 때’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문턱을 높다 [까다롭게 하여 접근하기 어렵게 하다]

→ 문 안의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턱을 지나가야 하는 데 문턱이 높다는 것은 문 안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문턱’은 진입을 어렵게 하는 [기준]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진입을 위한 기준이 높은 것은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을) 달다 [폐업하다]

39) 문금현,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47쪽.

→ 영업 중인 가게는 문이 열려있고, 영업을 끝나면 문이 닫힌다. 문이 닫혀있는 것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폐업]을 유추할 수 있다.

어금니를 악물다 [어려움을 참다]

→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할 때나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고통을 참을 때 어금니를 물어 버틴다. ‘어금니를 세게 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버티기 위한 행동으로 [어려움을 참다]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화촉을 밝히다 [결혼하다]

→ ‘화촉’은 결혼식 때 양가 부모님이 밝히는 초를 가리키는 말이다. 화촉은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로서 ‘화촉을 밝히다’는 [결혼식에서 초를 밝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짬밥(을) 먹다 [군대 생활하다]

→ ‘짬밥’은 ‘군대에서 먹는 밥’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짬밥은 군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철창 신세를 지다 [감옥살이를 하다]

→ ‘철창’은 ‘쇠로 창살을 만든 창문’으로 감옥의 창문이 쇠창살로 되어 있다. ‘신세’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치는 일]이다. 감옥에서 신세를 진다는 것은 [감옥살이]를 예측할 수 있다.

홀몸이 아니다 [임신하다]

→ ‘홀몸’의 의미는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이다. ‘홀몸’은 ‘연고가 없는 혈혈단신’을 의미한다. ‘홀몸이 아니다’는 [혈혈단신이 아니다]는 의미로 [임신]을 예측할 수 있다.

콩밥(을) 먹다

→ ‘콩밥’은 죄수의 밥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죄수의 밥을 먹다’는 [감옥살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반불투명 관용어는 특정 상황이나 문화와 관련한 단어를 포함한 관용어로 관용 의미의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화촉’, ‘짬밥’, ‘콩밥’, ‘무대’는 특정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모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관용어이기 때문에 불투명 층위보다는 투명하고 반투명 층위보다는 불투명한 중간 층위로 설정했다.

반불투명 층위의 관용어들은 서술어보다 명사에 의해 관용 의미를 예측하게 된다.

불투명 층위의 관용어가 'A+B=C'의 의미 구조를 갖는다면, 반불투명 층위의 관용어는 'A+B=Aa+B=C'의 의미 구조를 갖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반불투명한 관용어는 역사나 문화,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명사인 'A'에 중심의미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A'가 관용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뒤의 서술어는 'B'는 주변의미를 갖는다. 'A'와 'B'의 결합으로 관용의미를 생성하고, 그렇게 결합된 관용어가 관용의미를 갖지만 관용의미의 중심 의미는 'A'에서 예측되는 것이지 'B'에서 예측되는 것이 아니다.

다. 반투명

: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 신체어 관련 관용어

오리발(을) 내밀다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탄전을 부리다]

→ 닭 잡아먹고 오리 발 내놓기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 꼴이 됐는데 이제 와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어?”

=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 꼴이 됐는데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밀어?”

냉가슴(을) 앓다 [속으로 걱정하다]

→ 병어리 냉가슴 앓듯 [병어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속만 씩 이듯 한다는 뜻으로,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 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병어리 냉가슴 앓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해.”

= “냉가슴 앓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용기 있게 말해.”

눈에 띄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다]

눈(을) 돌리다 [관심을 돌리다]

눈(을) 똑바로 뜨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눈(을) 밝히다 [무엇을 찾으려고 신경을 집중하거나 힘을 넣다]

눈(을) 붙이다 [잠을 자다]

머리(가) 굽다 [어른처럼 생각하거나 판단하게 되다]

머리(가) 썩다 [사고방식이나 사상 따위가 낡아서 쓰지 못하게 되다]

머리(가) 세다 [복잡하거나 안타까운 일에 너무 골몰하거나 걱정하다]

머리(를) 내밀다 [어떤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다]

머리(를) 맞대다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

속담은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속담 그 자체에서 관용의미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어보다 투명하다. 관용어에는 속담에서 주변의미가 탈락하여 축소되어 이루어진 형태들이 있고, 이들은 관용의미가 속담의 의미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속담과 같이 의미가 투명하다고 볼 수 없다. 속담은 자체가 문장으로 쓰이지만, 관용어는 구 단위의 형태로 문장 안에서 구성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속담에서 주변의미가 탈락하고 중심의미만 남은 형태가 되면서, 속담일 때 주변의미가 의미 예측에 도움을 주던 것이 사라져 속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의미가 불투명하게 느껴진다.

속담에서 관용어가 생성되었어도 속담은 속담대로, 관용어는 관용어대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속담에서 생성된 관용어는 모국어 화자에게 속담보다는 불투명하고 다른 관용어보다는 투명하게 느껴지므로 반투명 층위의 관용어로 보았다.

신체어 관련 관용어도 반투명 층위에 속한다. 신체어는 대부분이 다의어이며, 의미 확장이 다른 단어보다 활발하다. 신체어가 포함된 관용어는 형태·통사상 제약이 약하고, 의미 예측이 쉽다. 신체어의 활용상 제약이 약한 것은 중심 의미를 갖는 신체어가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갖기 때문이다.

관용어의 층위를 불투명, 반불투명, 반투명의 세 가지 층위로 분류해보았지만 모든 관용어가 세 가지 층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관용어에는 예외적인 현상이 많다. 모든 관용어가 쉽게 분류되었다면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관용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투명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모든 관용어는 불투명한 것에서부터 투명한 것으로의 연속성 상의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⁴⁰⁾ 관용어의 투명성은 개인의 문화적 습관, 생활 양식, 지식 등의 요소가 작용하므로, 개인의 세대차 및 기타의 개인차 등에 의한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다.⁴¹⁾

관용어를 관용의미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관용의미를 가지는 관용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구 전체의 관용의미에 의미 확장이 일어난 ‘다의적 관용어’를 설정하여 의미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라. 다의적 관용어

관용어 중에는 관용의미를 한 가지 이상 갖는 표현들이 있다. 관용의미가 한 가지 이상인 것들은 문맥에서 관용의미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며, 관용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과 각자 아무런 관련 없는 다른 의미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렇

40) 윤희수, 『관용어의 굳은 정도』, 금오공과대학 「논문집」 11, 1990, 322쪽.

41) 문금현,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0쪽.

게 관용의미가 하나 이상인 관용어의 의미도 투명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노랗다

- ① 기력이 쇠하다 --- 불투명
- ② 지나치게 상심하여 막막해지다 --- 불투명

하품(이) 나오다

- ① 지루하다 --- 반불투명
- ② 보잘것없다 --- 불투명

한눈(을) 팔다

- ① 딴 짓을 하다 --- 반불투명
- ② 외도를 하다 --- 불투명

허리(를) 굽히다

- ① 겸손한 태도를 취하다 --- 반불투명
- ② 굴복하다 ----- 불투명

손(이) 거칠다

- ① 일하는 솜씨가 찬찬하지 못하다 --- 불투명
- ② 손버릇이 나쁘다 --- 불투명

손(을) 뻗치다

- ① (이제까지 해 보지 않던 일을 하며) 세력을 넓히다 --- 반투명
- ② 달라고 적극 요구하다 --- 반불투명
- ③ 적극적으로 간섭하다 --- 반불투명
- ④ 도와주려고 나서다 --- 반불투명

손(이) 맑다

- ① 인색하다 --- 불투명
- ② 재수가 없어 생기는 것이 없다 --- 불투명

세상을 등지다

- ① 죽다 --- 반불투명
- ② 은둔하다 --- 불투명

몸(을) 풀다

- ① 애낳다 --- 불투명
- ② 긴장이나 몸의 피로를 덜다 --- 불투명

몸(을) 버리다

- ① 여자가 정조를 잃다 --- 불투명
- ② 건강을 해치다 --- 불투명

관용의미가 하나 이상인 관용어들의 예시들을 보면 의미 영역이 완전히 달라서 관용의미 간에 관련이 전혀 없는 ‘손(이) 맑다’, ‘손(을) 뻗치다’, ‘손(이) 거칠다’, ‘몸(을) 풀다’, ‘몸(을) 버리다’ 등이 있고, 의미 영역이 같아서 관용의미 간에 관련이 있는 ‘세상을 등지다’, ‘허리(를) 굽히다’

‘한눈(을) 팔다’, ‘하품(이) 나오다’, ‘하늘이 노랗다’ 등이 있다.

관용의미가 하나 이상인 관용어를 ‘다의적 관용어’라 할 것이다. 관용어가 다의어화 되었기 때문에 ‘다의적 관용어’란 용어를 사용한다. 다의적 관용어는 관용의미 간에 의미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의미 확대는 단어 외에도 접사나 어미 등 단어 이하에서도 일어나며, 구절이나 문장과 같은 단어 이상의 당위에서도 일어난다.⁴²⁾

‘다의적 관용어’의 관용의미들은 투명성의 정도가 다르다. ‘다의적 관용어’에는 관용의미 간에 관련이 있는 것과 관용의미 간에 관련이 없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관용의미 중 하나가 ‘반불투명’ 층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불투명 층위의 관용어는 구성요소에서 관용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관용어이다. 의미 예측이 가능한 반불투명 관용어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나면 관용어의 형태적 의미와 확장 의미 사이의 의미 전이가 더 멀어져 불투명한 관용의미를 갖게 된다.

관용어의 의미의 투명성 정도는 구성요소의 형태적 의미와 관용의미 간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관용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는 구성요소와 더 멀어져 불투명한 층위의 관용의미를 갖는다.

한눈(을) 팔다

- ① 탄 짓을 하다 --- 반불투명

→ ‘한눈’은 [마땅히 볼 데를 보지 아니하고 탄 데를 보는 눈]는 의미를 갖고 있다. ‘탄 데를 보는 눈’에서 [탄 짓]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 ② 외도를 하다 --- 불투명

→ ‘외도’는 결혼 생활에서 다른 이성에게 ‘탄 짓을 하는 행위’이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한 눈을 파는 것은 [외도]로 예측할 수 있다.

42) 김서형, 『의미 확대와 관용 표현의 유형』,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67권 0호, 2013, 285쪽.

‘한눈(을) 팔다’의 관용의미는 두 가지이다. ①의 [탄 짓을 하다]는 구성요소 중 하나인 ‘한눈’에서 그 관용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반불투명 층위의 관용어이다. ②의 의미는 ①의 의미와 구성요소 ‘한눈’에서 [외도]를 예측할 수 있다. 관용어를 단어로 가정하면 ①의 의미는 관용어의 기본 의미가 되고, ②는 의미 확장이 일어난 의미이다. ①의 의미는 구성요소에서 예측할 수 있고, ②의 관용의미를 예측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①의 의미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날 때, ‘한눈’과 ‘탄 짓’에서 [외도]의 확장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손(을) 뺏치다

- ① (이제까지 해 보지 않던 일을 하며) 세력을 넓히다 --- 반투명
- ② 달라고 적극 요구하다 --- 반불투명
- ③ 적극적으로 간섭하다 --- 반불투명
- ④ 도와주려고 나서다 --- 반불투명

‘손을 뺏치다’는 관용의미가 네 가지나 된다. ‘손을 뺏치다’의 ‘손’은 전형적인 다의어로 ‘손’이 확장 의미인 [영향력]으로 쓰여 ‘손을 뺏치다’가 [영향력을 뺏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연어’로 봐야한다. 하지만 ‘손을 뺏치다’가 [세력을 넓히다]로 쓰일 때는 확장 의미 [영향력 뺏치다]에서 [세력을 넓히다]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반투명 층위의 관용어로 봐야한다.

②,③,④의 의미는 각각의 의미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구, 간섭, 도움 따위의 행위가 멀리까지 미치게 하다’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손’의 확장의미와 ①의 관용의미를 통해 ②,③,④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으며 반불투명하다.

‘한눈을 팔다’는 ‘손(을) 뺏치다’와 같은 의미 확장 형태는 구성요소의 직설의미와 다의적 관용의미 간에 ‘핵심 의미(core meaning)’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 ‘한눈’과 ‘손’에 핵심의미가 존재하며, 핵심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손(이) 맑다

- ① 인색하다 --- 불투명
- ② 재수가 없어 생기는 것이 없다 ---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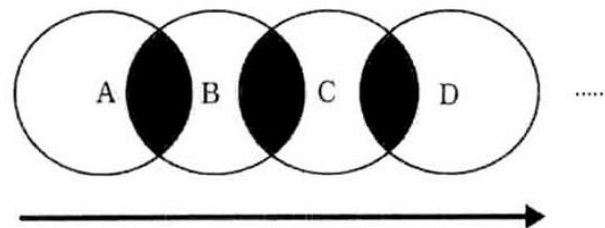
①과 ②의 관용의미는 불투명한 층위의 형태이면서 그 구성요소에서 관용의미를 예측할 수 없는 관용어이다. 이러한 경우 관용의미 ①에서 ②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때의 의미 확장에는 구성요소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구성요소와 ②의 관용의미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

적으로 ‘손이 맑다’가 비유적으로 쓰이다가 대중성을 얻어 관용어가 된 이후, 관용어의 구성요소와 어떠한 관련 없이 관용의미 자체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경우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관용의미 둘 다 불투명하다. 이러한 형태의 다의적 관용어는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간에 핵심 의미를 공유하며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의미와 의미 확장이 일어난 관용의미 간에 인접한 의미를 공유하는 형태로 연쇄적으로 의미 확장⁴³⁾이 일어난 것이다.

관용어는 그를 구성하는 단어 각자가 의미에 확대가 일어나거나 구성 구절 전체에서 다시 의미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⁴⁴⁾ ‘다의적 관용어’는 구성 구절 전체에서 다시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것이다. 다의적 관용어는 의미 확장이 일어날 때 관용어의 구성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구성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반불투명 층위의 관용의미에서 불투명 층위의 관용의미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한눈(을) 팔다, 손(을) 뺏치다). 구성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불투명 층위의 관용의미에서 불투명 층위의 관용의미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손(이) 맑다). 이 경우 맨 처음 생성된 관용어도 구성요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관용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다의적 관용어의 관용의미도 불투명한 것부터 반불투명, 반투명 것으로

43) 임지룡(2009)은 다의어의 연쇄적 의미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 연쇄’(meaning chain) 이론을 적용하는 데 다의적 관용어 중 직설 의미와 관련 없는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의미 연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의어의 의미 연쇄 구조>

의미 연쇄의 원리는 원형의미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이 핵심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닮음’처럼 연쇄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AB, BC, CD 간에 인접한 용법끼리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의미 연쇄 구조에 따른 다의적 확장의 기제로는 인접성(환유)에 의한 연쇄와 유사성(은유)에 의한 연쇄가 있다. (임지룡,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28권 0호, 2009, 200쪽.)

44) 김서형, 『의미 확대와 관용 표현의 유형』,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67권 0호, 2013, 281쪽.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의적 관용어와 다의어의 의미 확장 과정은 동일하게 일어난다. 다의적 관용어의 존재는 관용 의미가 얼마든지 의미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다는 걸 보여준다.

IV. 결론

관용표현의 유연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관용표현이 무엇이며 어떤 범주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관용표현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직설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지를 제시한 결과 관용어, 속담, 융합합성어, 의미적 연어가 관용표현으로 확인된다. 전문용어, 은어, 형식표현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었다. 상투적 비유표현은 관용어로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관용표현의 하위 범주들은 각각이 명확히 분류된 관계가 아니라 관용어를 기준으로 교집합을 이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용어와 속담, 관용어와 융합합성어, 의미적 연어는 경계에 놓이는 형태들이 존재하여 명확히 분류하는 것보다는 교집합 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교집합 부분에 놓이는 표현들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관용표현의 범주를 설정한 것은 관용표현의 유연성을 밝히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관용표현의 유연성이란 관용표현이 일반문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며,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을 관용표현이 형태·통사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으로 처리했다. 또한 관용표현의 직설 의미에서 관용 의미를 예측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관용표현의 의미적 유연성으로 처리했다. 직설 의미에서 관용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관용표현이 의미적 유연성을 갖기 때문이며, 본론에서는 투명도를 기준으로 유연성을 밝혔다.

관용표현 중에는 다의어화 된 것들이 있다. 이를 '다의적 관용어'라 제시했다. 다의적 관용어는 다의어와 같이 생성되며, 관용 의미가 하나의 단어처럼 처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의적 관용어 또한 의미적 유연성을 갖는다.

관용표현은 상당한 유연성을 갖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용표현의 고정성이 절대적인 특성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유연성 또한 절대적인 특성이 되지 못한다. 선행연구들에서 관용표현의 고정성을 중요한 특성으로 다루면서도 유연성은 특성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유연성 또한 관용표현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관용표현은 고정성과 유연성이란 특성을 갖는데 이 둘은 절대적인 특성은 아니다. 관용표현마다 고정성과 유연성이 다르다. 모든 관용표현은 고정성이 강한 것부터

터 약한 것으로, 유연성이 강한 것부터 약한 것으로의 연속선상의 어딘가에 위치한다.

참고 문헌

- 강선아, 『은유에 대한 철학적 연구 언어와 개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 강위규, 『관용 표현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한글학회, 「한글」 209호, 1990.
- 강현화, 『국어 속어표현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 고광주, 『관용어의 논항구조와 형성제약』,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42권, 2000.
- 김규선, 『국어 관용어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8.
- 권경일, 『한국어 관용구의 개념과 범위 : 관용구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16, 2008.
- 김인한, 『국어의 관용어에 대한 고찰 - 그 의미와 표현구조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 김문창, 『한국어 관용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4.
- , 『속어개념론』,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2권, 1990.
- 김미련, 『국어 관용 표현의 실태 연구 - 중학교 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서형, 『의미 확대와 관용 표현의 유형』,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67권, 2013.
- 김영철, 『국어 관용어에 관한 고찰』, 국어문학회, 「국어문학」 35집, 2000.
- 김종택, 『이디엄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25호, 1971.
- 김진식, 『관용어와 속담의 특성 고찰(Ⅰ)』, 개신어문학회, 「개신어문연구」 제 13집, 1996.
- 김인한, 『국어의 관용어에 대한 고찰 - 그 의미와 표현구조를 중심으로 - 』,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 김진해, 『관용어의 통사·의미론적 제약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5.
- , 『연어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4권 4호, 1999.
- , 『관용어 수식과 해석』,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의미학」 32권, 2010.
- ,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13권 13호, 2003.
- 김한샘, 「한국어 속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1.
- 김형배, 『사동과 피동표현의 속어의 고정성에 관한 연구』,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16권, 2005.
- 김혜숙, 『한국어의 익은말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목멱어문」 5집, 1993.
- 나은영, 『관용구의 통사 의미 자질 분석』, 태릉어문연구, 「태릉어문연구」 8권, 1999.

-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 『관용 표현의 생성과 소멸』, 국어학회, 「국어학」 28권, 1996.
 - ,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교육의 고찰』, 「선청어문」 27권, 1999.
 - , 『한국어 다의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의미학회, 「새국어교육」 71권, 2005.
- 박동근, 『한국어 기본 색깔말의 원형과 뜻풀이』, 한국문법교육학회, 「문법교육」 16권, 2012.
- 박만규 · 천미애,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어학회, 「국어학」 41, 2003.
- 박세영, 『국어 관용구 판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박영순, 『관용어에 대하여』,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53권, 1985.
- 박영준·최경봉, 「관용어 사전」, 태학사, 1997.
- 박진수, 『국어관용어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 박진호,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회, 「국어학」 41권, 2003.
- 백석원, 『국어 관용구와 다의어의 의미 관계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인지 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의미는 합성적인가? 비합성적인가? - 인지의미론의 견해를 중심으로한 고찰』, 담화 · 인지언어학회, 「담화 · 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 안경화, 『한국어 속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 안소진, 『관용표현의 통사적 변형에 대한 시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와 언어학」 56권, 2012.
- 안연희, 『국어 관용어 지도 방안 연구 - 고등학교 국어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양영희, 『관용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회, 「국어학」 26권, 1995.
- 양영희,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 오제운, 『우리말 관용어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윤희수, 『관용어의 굳은 정도』, 금오공과대학 「논문집」 11권, 1990.
- 이희자,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30권, 1995.
- 주영진, 『우리말 속담의 관용어 되기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지경숙, 『국어 관용어의 의미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최경봉, 『국어 관용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 「우리말 관용어 사전」, 일조각, 2014.
- , 「어휘의미론」, 한국문화사, 2015.
- 최수진, 『관용어 의미의 투명성을 고려한 교육용 관용어 목록 연구 -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한정한, 『관용구의 문법범주』,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61권 0호, 2010.
- 황화상, 『관용 표현과 어휘부 그리고 문장의 형성』, 「한국어학」 65, 2014.
- 황희영, 『한국 익힘말(慣用語句)의 生成과 類型攷』,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4-5권, 1977.
- 허 양, 『한국어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관용 표현의 범주와 유연성

조승화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 논문은 관용 표현의 유연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연성의 개념은 형태·통사적 유연성 및 의미적 유연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일반문과 관용 표현을 비교 하면, 관용 표현은 일반문에 비해 형태·통사적 활용에 한계가 있지만, 관용적 의미를 잃지 않을 때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형태·통사적 활용이 가능한 것을 형태·통사적 유연성이라고 한다. 관용적 표현의 의미적 유연성이란 직접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어 관용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의미와 관용적 의미는 전통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관용적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예측 가능한 정도는 투명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관용적 의미를 갖는 다의적 관용어는 다의어와 동일한 의미 확장 과정을 가지며, 관용적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관용 표현은 정도가 다르지만 형태·통사적 유연성과 의미적 유연성을 갖고 있다. '융합 복합어 → 속담 → 의미 연어 → 속어'순으로 형태·통사적 유연성이 다르며, 의미적 유연성은 '의미론적 연어 → 속담 → 관용어·융합 복합어'의 순으로 다르다. 관용 표현의 유연성은 매우 유연한 것부터 덜 유연한 것까지 모두 정도가 다를 뿐이다.

관용적 표현의 고정성 및 비합성성은 유연성과 상반되는 특성으로 항상 함께 다뤄져야 한다. 고정성은 형태상의 유연성과 서로 관련이 있다. 고정성이 강할수록 유연성이 약하며, 고정성이 낮을수록 유연성이 강해진다. 비합성성은 의미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비합성성이 강할 수록 의미적 유연성이 약해지고, 비합성성이 약할수록 의미적 유연성이 강해진다. 관용 표현의 특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고정성과 비합성성, 유연성은 함께 다뤄져야 한다. 관용 표현의 유연성은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연속선상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다.

주제어 : 관용표현, 유연성, 형태적 유연성, 의미적 유연성, 유연성의 정도

Categories and flexibility of idiomatic expressions

Cho seung hwa

Majo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flexibility of idiomatic expressions. The concept of flexibility can be categorized into form, syntactic flexibility and semantic flexibility. Comparing general expressions and idiomatic expressions, it is certain that idiomatic expressions have limitations in usage compared with general expressions, but they can be used in any condition without losing idiomatic meaning. What can be used in this way is called syntactic flexibility. The semantic flexibility of idiomatic expressions means that idiomatic meanings can be predicted because there is a certain relation between direct and idiomatic meanings. Although the direct meanings and idiomatic meanings are traditionally thought to be irrelevant, there are things that can predict the meaning of idiomatic, and the predictable degree can be classified as transparency. In addition, the idioms with more than one idiomatic meaning also have the same semantic extension process as the polysemous word, and have transparency because they can predict idiomatic meaning. There is a degree of flexibility in the idiom. There is a difference in syntactic flexibility in the order of 'fusion compound word → proverb → semantic salmon → idiom', and semantic flexibility is in the order of 'semantic

salmon → proverb → idiomatic · fusion compound word'. The flexibility of idiomatic expressions should be considered to exist between very flexible and non-flexible.

The fixation and non-synthetic nature of the idiomatic expressions are always contradictory to flexibility, so they should always be viewed with flexibility. Fixity is related to syntactic flexibility and relative to each other. The stronger the fixation, the less flexible, and the less rigid, the more flexible. Non-syntactic is related to semantic flexibility. The stronger the non - syntactic, the weaker the semantic. The less the non - syntactic, the stronger the semantic. It reveals the flexibility of idiomatic expressions, and it can be see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diomatic expressions should be regarded as relative rather than absolute.

Key-word : idiomatic expression(관용표현), flexibility(유연성), syntactic flexibility(통사적 유연성), semantic flexibility(의미적 유연성), degree of flexibility(유연성의 정도)